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面

社說 岡田內閣의 前途

注目되는 今期議會

一

오래동안 高橋藏相과 軍部大臣間에 論抗하든 明年度豫算案은 三十日 午前七時에 이르러 겨우 二十二億七千餘萬圓으로 妥協落着되엇다。高橋藏相側으로 보면 明年度公債發行額이 六億七千萬圓으로 되어 今年度보다 一億圓이 減少되엇스니 公債漸減主義에 마즌셈이오、軍部側으로 보면 陸海軍豫算을 合하야 十億餘萬圓으로 今年度보다 多少라도 增加하야 全豫算歲出額의 四割九分을 占햇스니 國防上滿足하다 할것이다。이리하야 政府、軍部間에 意見의 衝突이 잇슬뜻이 보이든 政局은 우선 安定을 보앗다 할수잇겟고 六十八議會에 對한 準備도 岡田內閣의 손으로 되뜻하다。그러나 岡田內閣의 前途는 아즉 樂觀을 不許하니 今次의 議會는 明年의 總選擧를 압둔 해이므로서이다。

二

政黨의 目的이 어데잇는가는 別問題로하고、政權을 掌握할것을 豫想치 안는것은 업다。政友會는 過去 四年間 絶對多數의 議員을 抱擁하고잇스면서 單獨으로 政權을 掌握치못하고 一時는 齋藤內閣과 協力하고 昨年 岡田內閣 出現當時는 오즉 政友會로서는 恥辱을 바드면서 隱忍하고잇슨것은 周圍情勢가 政友單獨의 政權掌握을 不許한 때문이다。그러므로 今次의 議會後는 어쨋든 總選擧가 닥처오니 議會를 利用하야 政府를 攻擊하야 解散을 當하고 그리고 國民에게 그 政策을 揭하고 訴하야 그 勢力을 挽回하라한다 이리하야 政府 彈劾의 理由를맨든것이 日 國體明徵問題 日 地方交付金及義務敎育費國庫負擔問題 日 敎學刷新問題이다。그러므로 政友會의 政府彈劾이 政見의 差異보다도 政權爭奪의 手段임을 알수잇다。

三

그러면 岡田內閣은 政友會의 政府彈劾計畫에 對하야 如何한 作戰이 잇는가。岡田內閣은 이미 國體明徵問題에 對하야 有耶無耶히 이問題를 埋葬하라고 敎學刷新委員會를 文部大臣管轄下에 두엇다。그러나 今日에 이르러 政友의 絶縁을 보고 以上議會의 解散을 決定하고 오즉 그 機會를 엿본다。政友會가 議會再開劈頭에 彈劾案을 提出할것이나 或은 그 開會中이나 또는 國體明徵問題를 가지고 彈劾할것이나 全般的 政策問題를 가지고 할것이나 아즉 未決狀態에 잇는것과 가티 政府도 그 時期와 方法에 對해서는 未定이다。오즉 政友에 機先을 制하야 解散을 斷行하야 政府에 有利할것만은 算酌하므로 大槪 議會再開劈頭가 되지안흘가한다。

四

그런데 一旦 議會가 解散되야 總選擧가 되면 어떤 結果를 낼것인가。總選擧의 前哨戰이라고도 볼만한 今秋의 地方議會 選擧는 政民이 絶對多數를 가지고 國同、無產 其他國粹主義政黨은 一切 存在를 微微히 보엿다 이것으로 보면 政民 特히 政友가 大多數를 占하고 床次氏를 中心한 新黨樹立運動이 挫折된것은 勿論이오、一官僚들의 基盤인 國粹同盟가 擡頭 到底 못할것은 거이 確定的이다。그러타고하면 民政、床次派等의 與黨派의 數가 政友를 當치 못할때 岡田內閣은 當然히 在閣할수 잇슬가。

時期가 時期이만큼 軍部內閣은 아즉 出現을 보기 어려울지나 그러타고 總選擧에 나타난 國民의 意思도 全然無視할수업슬지니 岡田內閣에 밧귀어면 協力內閣이 出現하지아닐가。

會見懇請하드래도 一切交涉을拒絶!

有吉大使南京行도中止決定

何氏北上으로 日中關係急迫!

【東京電話電通】何應欽의 北上은 有吉大使와 蔣介石氏와의 會談趣旨에 反하야 日本을 無視한 態度라하야 外務省에서는 매우 不快視하는데 中國側은 北中問題解決의 辦法을 提示할것을 約束하고서도 二十六日의 行政院會議는 一方的으로 何應欽氏의 北上을 決定하고 日中交涉의 誠意를 無視하이 如斯한 不正한 態度를 繼續하는 時는 日中國交調整은 不可能이라하야 外務省에서는 有吉大使의 南京行을 無期延期키로 決定하엿다 卽 去二十日의 有吉大使와 蔣介石氏의 會見에서 中國側은 北中態度에 나왓스며 또三十日唐外交部次長으로부터 何應欽氏의 北中派遣의 通知를 受한때에 須磨南京總領事가 注意를 喚起하엿슴에 不拘하고 北上을 强行한故로 이때문에 北中事態는 必然的으로 益益惡化할것으로 보이므로 外務省에서는 今後萬若 北中事態가 現在 以上惡化하야 國民政府로부터 會見을 哀願하는限이잇드래도 斷乎一蹴한다는 强硬決意로 何應欽氏의 北中行을 契機로 日中關係는 依然惡化할수밧게 업는 狀態로되엿다 (사진은 廣田外相)

何氏와重要協議次 北中要人保定急行

【北平二日發聯合】平津衛戍司令宋哲元氏 北平市長秦德純氏 察哈爾省政府主席蕭振瀛氏 熊文廳氏 蕭振瀛氏는 二日午後零時二分 同車로 北平出發 保定으로 急行하엿다 同地에서 何應欽氏一行을 迎하야 夕刻으로부터 蔣介石氏特使와 北中自治에 關한 重要協議를 開始할터이다

宋氏代表派遣 何應欽氏出迎

【北平二日發電通】何應欽氏는 二日午後三時半 石家莊을 通過하야 同七時에 保定에 到着한다는 情報가 잇서 宋哲元氏는 代表로서 門致中氏를 保定에 派遣하야 歡迎하엿다

秦德純氏通電

【北平二日發電通】北平市長秦德純氏도 二日 드듸어 南京政府에 對하야 如左한 通電을 發하엿다

國家多事하야 北方이 가장 急하다 混亂의 情勢는 應接通報한바와갓다 停戰區域이 突然 分立하고 天津에는 變亂이 起하야 民心이 動搖되어 自治自決의 議論이 紛紛하다 그展開急速突然함이 前無함으로 收拾키 難하야 慰撫의策이 업다 따라서 中央은 速히 大計를 定하야 國法을 定하기를 希望한다

王正廷氏 米中借款交涉說否定

【東京電話電通】目下 訪日中인 王正廷氏가 訪日途中 아·제파손號內에서 同船의 米國副大統領가너氏에게 二億元의 借款問題를 協議하엿다는 說이 上海로부터 傳한데 對하야 王氏는 如左히 이것을 否定하는 談話를 發表하엿다

今回 내가 日本을 訪問한것은 實情視察이 目的이오 政治的要件은 一切 가지지안흔다 가너副大統領과 同船한것은 全혀 偶然한 同船으로 傳하는바 二億元借款과 如한것은 全然 無根한것으로 나를 誣謗함도 甚하다 나의 訪日目的은 압서 말한바와가티 實業視察이므로 此際에 政治的行動은 하지안는다 廣田外相에게는 꼭 만나서 敬意를 表하고시프나 이는 나로서 當然히할 義務이다 또 나는 東京에 예엇 友人이 잇스므로 이이들과 만나서 積懷를 叙하고시픈데 이도 또한 友人에게 對한 儀禮요 決코 政治的意味를 가진것이 아니므로 그러케 誤解해주기바란다

蔣介石中心의 獨裁陣容結成確立

汪氏一派總退却으로

【南京二日發聯合】一中全會에서 行할 國民政府主席以下 政府要人事異動은 여러가지 下馬評이 行하고잇스나 結局 蔣介石氏를 中心으로 斷行될것은 明白하야 現在로는 胡漢民氏의 歸國은 可望이업고 따라서 西南派의 加入도 期待할수업다 一方 行政院長과 如한것도 汪精衛氏의 再起不可能이라고 보며 蔣介石氏自身이 擔任할 意向이오 이에 伴하야 汪氏一派의 總退却을 招來하야 蔣介石氏의 獨裁陣容이 結成될것은 確實하다고 보인다

華北政務改進 委員會誕生

【北平二日發聯合】自治宣布는 着着 準備가 進捗되어 特別한 支障이 업는限 左의 順序로써 新政府를 樹立할터이다

一、平津衛戍司令 宋哲元氏以下 現當路者는 一日부터 總辭職 通電을 發할것

二、地方協會自治研究會 其他官民各團體는 二日朝 自治維持委員會를 組織하야 卽時 宋哲元氏를 推戴하고 自治宣布를 要請할것

三、自治宣言을 實現할 新政權의 名稱은 中央과의 關係를 考慮하야 『自治』의 二字를 쓰지안코 『華北政務改進委員會』로할것

李宗仁、白崇禧 國府에抗敵決意促進

北中救濟抗爭自願

【廣東二日發聯合】西南派의 巨頭인 第四集團軍總司令李宗仁氏及副司令白崇禧氏의 兩名은 華北自治政府樹立의 氣運을 매우重視하고 最近 國民政府에 抗敵의 決意를 促하야 連名으로 如左히 電請하엿다고 傳한다

國民政府는 刻下의 危急을 救하기爲하야 此際에 斷乎抗敵의 決意를 하고 我等兩人에 對하야 抗爭의 先鋒的 名義를 與하기를 바란다

日本驅逐艦『菊』 天津에到着

【天津二日發聯合】去月二十九日 秦皇島로부터 太沽에 入港하야 假泊中인 驅逐艦『菊』은 二日早朝 白河를 溯航하야 午前十一時 天津日本租界碼頭에 投錨하엿다

高橋駐在武官 宋氏會見要請

【北平二日發電通】高橋北平駐在武官은 何應欽氏의 北上에 依하야 北中自治派首腦部의 態度에 多少動搖의 色이 보이므로 二日 自治派總帥宋哲元氏의 意向을 드르려고 會見을 要請하엿다 高橋武官은 宋哲元氏의 最後的決意를 確聞한後 日本軍部의 意向을 傳達할것으로 보이는데 同會見의 結果는 자못重大視되고잇다

國府色彩濃厚한 新機關絶對反對

自治精神이多分히包含되면一過程으로默認

新機關과軍部側決意

【北平二日發電通】何應欽氏의 携行한 北中問題解決의 妥協案은 北中五省首席、三市長及 平津衛戍司令으로 成立된 最高行政機關을 北平에 設置하고 北中自治派의 主張과 中央의 統制權을 巧妙히 折衝한것이라는데 右에 關하야 北中情勢의 變化에 重大關心을 갓고잇는 日本軍部에서는 如左한見解를 갓고잇다

一、北中自治運動은 中華民國을 離脫식히려는것이 아니고 敵對行爲도 아님으로 新機關에 民衆이 要望하는 自治精神이 多分含되면 一過程으로 구다여 反對하려안는다

一、新機關에 中央系人物이 介在하거나 또는 何應欽氏가 最高地位에 서게되다면 政務整理委員 或은 軍事分會와 何等다를것이 업스므로 絶對로 承服할수 업다

一、新機關이 停戰區의 自治委員會를 彈壓하면 日本은 斷乎默視할수 업다

一、宋哲元氏等 自治派首腦部는 一般民衆及 關係方面에 對하야 自治制實施를 公約하엿다

一、萬若 自治派가 그公約을 破棄하고 中央政府의 懷柔에 應하야 自治主張을 放棄함과 如한일이 잇스면 全民衆의 制裁를 바더야할것이다

一、要컨대 新機關이 南京政府의 代辦機關的色彩를 띄는限 一切認定치안흘 方針이다

河南省中央軍으로 民衆運動은彈壓?

【天津二日發電通】何應欽氏는 二日 北平行을 變更하야 河南省開封에 赴하엿다 右는 河南省首席劉峙氏와 會見하고 同地方의 中央軍으로서 北中民衆運動의 武力彈壓의 件을 協議하기爲함이라고 보이므로 日本軍部는 事態를 重大視하고잇다

事實上自治認定코 『自治』名稱만不使用

西南同樣의北方政務委員會組織

北中自治解決辦法內容

【北平二日發聯合】軍政部長何應欽氏는 宋哲元、商震等實力派要人을 保定에 招致 時局打開의 辦法을 樹立할 方針으로 解決되는 대 何應欽氏가 意圖하는 解決辦法은 大體 이러하다고 確聞되다

一、自治의 名稱을 使用치말고 西南派와 同樣으로 北方政務委員會를 組織하고 北中國의 自治를 事實上承認함

一、委員會에는 日本과의 經濟合作、赤化共同防衛에 關하야 自由裁量의 權限을 附與함

何氏六百萬으로 北中要人買收說

【北平二日發聯合】何應欽氏는 北上에 際하야 中央銀行紙幣 約六百萬元을 持參하고 秘密히 北中將領의 買收費로서 使用하려하다는데 이미 何應欽代理를 보내여 五百萬元을 提供하야 宋哲元氏買收運動을 試하엿스나 宋氏는 斷乎不應하엿스므로 宋氏部下를 買收하야 苦境에 넣으려고 하는터인대 何應欽氏의 活躍으로 北中形勢는 益益激化하야 軍當局은 何氏의 今後行動을 嚴戒하고잇다

印度兩族大衝突

【라호르(편잡州)一日發聯合】라호르에서 三十日시―크族과 印度敎徒族과의 大衝突을 起하야 英兵及 印度兵이 卽時 出動하야 極力鎭壓에 當하고 잇는데 이미 死者三名重傷者二十五名을내어 負傷者는 卽時 病院에 收容되엇다

國際聯盟缺陷을 伊國通信社暴露

滿洲事變을引用하야

【羅馬一日發聯合】制裁의 發動에 直面하야 伊太利政府는 滿洲事變과 차코 紛爭等을 採用하야 자조 國際聯盟의 失手를 非難하고잇는데 이든無任所相이 英國下院에서 滿洲事變과 伊에對한 今回의 紛爭이 實質的으로 相違된 所以를 說明한데 應酬하야 國營스테파니通信社는 一日 當局側의 情報로 左의 事實을 暴露하엿다

一、이든無任所相은 中國政府가 規約第十六條를 採用하지아니하엿다는 旨를 자조 主張하고잇스니 滿洲事變當時 英外相싸이먼氏는 中國代表에게 對하야 第十六條를 援用치안토록 再三警告를 加하야 第十六條의 援用은 何等 實益이업고 中國이 打擊을 바들 念慮가 잇다는것을 指摘하엿다

一、一九三二年末부터 三三年에 至하야 英外務省高官은 規約第十六條의 死文인것을 强調하야 同條約을 援用치안토록 자조 中國代表에게 警告하엿다

一、最近 英國外務省의 樣히 노픈 地位에잇는 高官이 中國政府에 對하야 滿洲國을 承認하도록 壓力을 加하고또英國外務省中國局長은中國政府가 滿洲國을 承認하는外에 極東平和를 確保할 方法이 업다는 旨를 確言하야 同樣으로 壓力을加하엿다

加奈陀突然反對?

對伊石油制裁에

가나다提案임에不拘코

【쥬네브二日發電通】加奈陀政府가 總選擧後 內閣更迭로 對伊制裁에 關한 方針을 豹變하야 石油、石炭、鋼鐵等의 對伊禁輸에 反對의 意向을 示하엿다는 報道에 쥬네브에서는 크게 驚駭하야 大體 最初에 右提案을 한것이 加奈陀代表이엇던것이만큼 意外의 感을 抱懷하는者만코 또 英國의 自治領인 立場에 잇스면서 何故로 지금 이案에 反對하는지 疑心스럽다고 하는이가만타 制裁委員會議長은 一國 加奈陀의 反對로 委員會의 일에 變化를 招來하지는 안는다 하고잇스나 列國代表部는 加奈陀의 이態度는 來月十二日에 延期된 十八國委會의 石油討議를 다시 再延期할바게업시될것이라고하고잇슴으로 萬若 英、加兩國政府間의 折衝이 잘되지안흘때에는 對伊制裁는 英國의 膝下에서 崩壞되어 事態의 新展開를 生할것이라고 念慮하고 잇다

米國國債激增! 二百九十億突破

失業救濟資金을裕足히하기爲하야 又復九億弗國債發行

【華盛頓一日發聯合】米國國債는 連日 增加의 趨勢를 밟버 現在 이미 二百九十億을 突破하야 米國建國以來 未曾有의 巨額에 達하엿는데 今冬의 失業救濟資金에 充當하기 爲하야 財務省은 手持現金을 豐富케할 必要가잇서 一日 다시 九億弗의 國債發行을 發表하엿다

夕刊後市況 二日

◆大阪 短期 氣配◆

大新	一〇〇五〇	(一〇高)
鐘新	一五一二〇	(三〇低)
日產	七四〇〇	(一〇低)
東新	一六九五〇	(二〇高)

◆橫濱 生糸 後引◆ 當限八六〇〇〇 先限八四四〇〇

◆福井 人絹 後引◆ 當限 五八〇〇 先限 五八三〇

商工業視察記 ④

商人이考案하야 產地에直接注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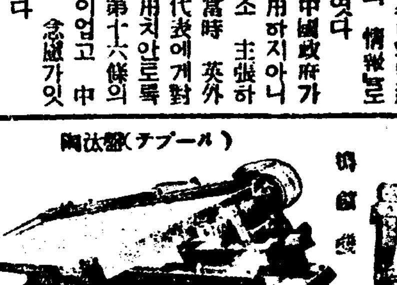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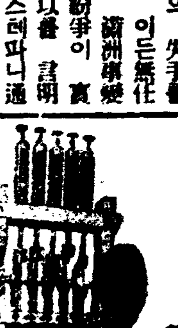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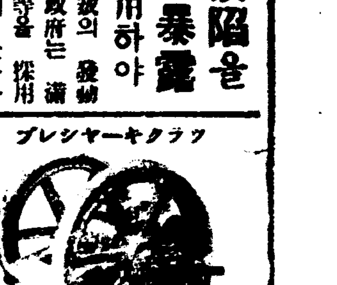
方應謨

製品을 만들되、各國의 風俗、習慣에 마추어 만들고 잇다는 一事와 關聯해서 생각되는 일이 한가지 잇다。그것은 卽、朝鮮사람商人과 大阪地方工業家와의 連絡에 關한 問題다。朝鮮말은 亦是、朝鮮사람이 잘 알드시、朝鮮民族의 風俗、習慣은 朝鮮사람이 잘 알것이다。新羅의古典的鄕歌의 解讀에 對해서는 幾十年을 두고 朝鮮말을 專門으로 研究한 小倉進平博士보다 博士에 比하야 年淺한 梁柱東氏가 優秀한 成績을 내엇다는말을 듯거니와 이와마찬가지 理由에 依하야 朝鮮사람에게 팔기를 目的으로 한 商品의 製造에 잇서서도 그것을 朝鮮사람의 風俗、習慣 嗜好에 꼭 맛도록 만드는 技術에 잇서서는 亦是 朝鮮사람이 大阪工業家보다 훨신 나흘것이다。萬若 그러타면 朝鮮사람의 손으로 工業이 이러나기까지의 過渡期에 잇서서는 朝鮮사람에게 씨울 商品을 만들되 考案은 朝鮮사람이 맛고、製造는 大阪等地工業家가 맛는다는 式으로 서로 連絡을 取하는것이 雙方을 爲하야 조치아니할까?한다。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이러케된다。卽 人造絹하면 人造絹을 만들되、두러이(厚)는 어떠케 하며、널비(廣)는 어떠케하며、무늬(紋)는 어떠것으로、햇스면 조켓다는것을 商人自身이 考案해서 이것을 中間에 다른 손을 거치지 말고、直接으로 大阪等地의 工業家한테 註文하야 만드러다가 판다는 方法을 取햇스면、이것은 大阪等地의 商人側으로 보나、우리朝鮮사람側으로 보나 雙方이 다 有利할것을 나는 밋는다。

그러고、考案을 朝鮮사람이 맛게 되는날이면 이에 附隨하야 朝鮮사람이 여러가지로 有利한 立場에 설수 잇다는것을 여기서 一考할 必要가 잇다。于先、婦人네들 옷감하면 옷감 한匹의 기럭지는 幾尺이라야 치마감、저구리가음으로 끈키에 適當하냐하는것도 商人自身이 多年의 經驗에 依하야 案出할 問題다。그러고 이런 方面을 잘 研究하야 치마나、저구리가음을 끈어내고、餘不足이 업시 만드는것은 勿論이겟지마는 이것을 社會全體로 본다고할지라도 社會的濫費를 節約하는 意味에 잇서서 크게 有利할것이다。現在廣木은 한匹이 嗎數로는 四十嗎、尺數로는 六十八尺이요、또 人造絹 한匹기럭지가 嗎數로는 十五嗎、尺數로는 二十五尺五寸으로 되여 잇스나 이것은 朝鮮사람의 옷가음用이라는데 標準을 두지 안흔것이기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치마가음을 끈허내나、저구리가음을 끈허내나 大槪는 餘不足이 생기는 모양인데、끈어낸 結果로 보면 不足도 또한 餘임에 틀림이업는것이니까、그나머지 所謂자투러기라는것은 結局、社會的濫費라고 볼수밧게 업는것이다。

그러고 近來、婦人들의 嗜好가 漸漸될수잇스면 솜을 두지 안코、입을만한 옷감을 조와하는데로 옮마 가고잇슴을 보는데、商人이 이에 눈을 떠가지고 그嗜好에 마추려면、不可不、그러려면 얼마나한 두러이(厚)를 가진 옷가음이면 朝鮮의 氣候에 마즐가하는것을 研究하야 考案해야 될것이다。그러니까 考案을 朝鮮사람이 맛는다는것은 이런 方面에 對한 改良進步를 朝鮮사람이 가지는것과 가튼 것이다。그러고 이것을 只今말한대로 하자면 自然、商品의 仕入은 大阪等地의 製造元과 直接去來를 할수밧게 업시될것인데、이一事가 朝鮮사람全體로보아 如干、有利한것이아니라고 나는생각한다。朝鮮사람의 장사는 產地製造元과 直接去來를안코 中間에 만흔 商人을 거처서 仕入하기때문에 이것을 商人自體로보면 利益이 甚히 薄하고、이것을社會全體로보면 無用한 損失을 보게되는데 이제 考案을 朝鮮사람이 맛는結果로 產地製造元과 直接去來하는 風潮가 크게 이러나게되면 商人自體로보나 社會全體로보나 크게有利해질것은 大槪疑心업슬일로 나는 본다 (繼續)

◆訂正=前回第二段右로부터第六行中『마음를』은 「가음」의誤。가음은衣服材料를 意味함。




朝鮮鐵工所
京城スプリング製作所
陶汰盤(テブール)
プレシヤーキクラフ

山葉ピアノ
家庭用(堅型) 500圓以上
學校用(平台) 1·000圓以上
(全鮮各特約店에有함)
カタログ贈呈
日本樂器會社出張所
(京城本町一·電本三四八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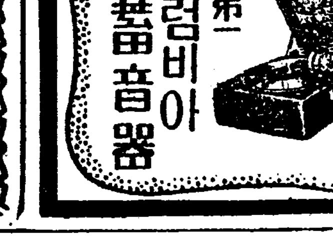
肺專門療養院
住所 黃海道海州邑南山外
一、入院療養御希望者에 一冊
一、療養指針 一冊 要八十四錢
一、入院案內書 要二十二錢
院長 醫博士
副院長 金秉瑞
電話 一七五番 振替京城 一〇六九番

好職業
不景氣와失敗는업다 利益만코本業副業으로男女老小누구나自宅에서할수잇는職業、年中無休、說明書及見本無代進呈
急募
大阪天王寺區筆ケ崎町
福榮本舖

セブランス醫專病院
檢眼無料
京城驛前 電本四七四〇
本校眼科敎授 本院眼科科長 擔任 檢眼

桃花劇場
十二月三日밤부터大公開!
大衆料金 階上十五錢 階下十錢
土曜日曜祭祝日은晝夜二回公開 낫一時 밤七時十五分始映
FOX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戰爭劇 모록코의血煙 全九卷
監督主演……렉스·잉그람氏
RKO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空中레뷰時代 全十一卷
監督……손톤·프리랜드氏
主演……도로레스·데리오孃
全發聲 뉴―스 全二卷
次週 戰艦 엠덴 오데라 三文 全九卷
麻浦桃花洞 電話 三三

年賦定期貸付
普通銀行業務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百四十番地ノ一
株式會社 朝鮮殖產銀行
頭取 有賀光豊
資本金參千萬圓
全鮮各地에支店出張所六十餘個所及內地大阪에支店잇음
日本銀行代理店
日本勸業銀行代理店
朝鮮貯蓄銀行代理店


大衆盤 콜럼비아
님무덤압해서
미스·리―갈
REGAL
리―갈레코―드
一枚 八十錢
世界第一 콜럼비아 蓄音器

치질 專門 肛門病科
東光醫院
大田本町一丁目 (電話九九番)
藥物治療顧問 柳東鉉

優美館
浪花館

殺人急行列車
銀河에흐르는情熱
임자업는나루배
眼と耳の新聞
無軌道親爺水道屋の卷
幽靈の置手紙
麗人社交場

精神、神經科
腦、脊髓科
京城郊外淸凉里
原病院
院長 原振緖
電光二六四三番

自動車運轉手募集
一、年齡二十五歲以上 二、旣婚者 三、實地三年以上 貨物自動車經驗이有한者 四、月收六十圓以上 五、募集人員數十名
京城府鍾路五丁目九八番地
太平貨物自動車部
電話光化門六七九番

自轉車用
グレート印
스프링사도루
輕快 堅牢
全國自轉車店에잇음
神戶 山本サドル株式會社

クローム懷中時計
二百枚限
見品附投賣
注意 オーバ一枚貸
クラウン工業所地方部
東京市向島區東三ノ一六
振替東京 三三五〇三

蘇聯漂流船乘員은 意外로現役陸軍

蘇聯領事館의引渡請求를憲兵隊拒絶

明川署서方今取調

긔보=지난달이십삼일에 함경북도 명천군상고면 보촌동(明川郡上古面寶村洞) 해안에 표착한 『싸베트』로서아의 발동선은그후 그배에타고잇던 다섯사람중에 생존해잇는 세사람은 그곳 경찰이 라남(羅南)헌병대와 협력하야 엄밀조사한 결과 그들은모다 지난 오월에 중병된현역 로서아 군인으로서 다수의무긔와 탄약을 실고 잇는 점으로 보아서 그대로 계속 하야 취조할방침이며 또지난 삼십일에 경성에잇는 로서아령사관 서긔 헤모치니엘』씨가 현장으로가서 그세사람을 가로맛기로 교섭하엿스나 그대로들어주지안코잇다는데 혹시무슨군사적중대사명이나잇지안흔가 주목된다한다

老博士의眼瞼에 넘치는惜別熱淚

四十三年間情든第二故鄕을두고

魚丕信博士昨日歸國

사십삼년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오로지 조선을 위하야 우리의료사업(醫療事業)과 교육사업에 위대한 력사적 긔념탑을싸하노코 고국인 카나다의고향으로 도라가는『에비슨』로박사부처는 드듸여 이일 오후세시에 부산행(釜山行)『노조미』렬차로 경성을 떠나게되엿다 이날 역두에는 경성의 지명인사는 거의다 총출동을보며 교회관계자와 학교관계자로 윤치호(尹致昊)구자옥(具滋玉) 신흥우(申興雨)유억겸(兪億兼)오긍선(吳兢善)씨외 륙백여명의친지와명사들은물론 시내미국인 거류민전부가 다 나오다십히하고 연희전문(延專)『세브란스』의전(世專) 리화전문(梨專)학생들단체등 그전송하는 인사들로서 경성역제일『플랫폼』은 문자그대로 립추의 여지가 업는 광경이엿다 수백명인사들과 일일히 악수로 전별의 뜻을 표하고잇는 동안에 박사를 태우고 이땅을 떠날『노조미』렬차는 드러다혓다 마주막으로 세부란스의 전학생의 교가로 전별의 뜻을 표하자 만세삼창과함께이윽고 출발『벨』이 울리엿다 로박사부처는정든고향을 생리별하는것처럼 글성글성한 눈자욱에는 눈물흔흘리면서 마지막 인사를하고 송별객의 성대한 『후라―』소리와 함께 긔차에올라 조선의 늙은은인을 실은 차는 긔적일성과 함께 애석한 길을 떠낫다 박사의 자제며 칠팔명 각별히 각가운이들이 수원까지 전별을나가는 일행에 끼어 렬차중에서 마즈막가는 감상을 뭇는 기자에게 로박사는 말하엿다

『귀보를 통하여 조선의 모든 형제에게 감사하며 작별을고합니다 이러케 성대한 전송은 더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차창밧게 련하여 밧귀는 풍경을 자주내어다 보면서 『내가 사십삼년전 처음 올때에는 저러한 건물들이나 시설은 업섯슴니다 그러든것이 지금은 저러케 모다 조아지지 아니하엿슴니까 그러나 조선의 형제는 지금의것으로 만족하지말고 아프로 더욱더욱 발전하고 융성해야합니다 지금 떠나는 내마음은 너무도 섭섭하고 슬퍼서 무어라고말할수가 업슴니다』 하며 한숨을 내어쉬엿다 박사부처는 일로 신호(神戶)로가서 『엠프레스·오브·카나다』호로 사일에 신호를떠나 횡빈(橫濱)에 기항하엿다가 륙일에 아주 출발을 하게될터이다

桂氏레코드吹込

본사주최의 제일회독주회에서 귀국이후 처음연주를해서 고로인사의 절찬을바든 우리악단의지보『바올리니스트』게정식(桂貞植)씨는 최근에는 동경(東京) 악단에서 그려명을 날리고잇스고 또한독일(獨逸)모교로부터 교수초빙의통지까지바더서 드듸여세계적영예를 획득하엿거니와 이번에『컬럼비아』축음기회사에 처음으로 취입해서 신춘부터 발매하기로 되엿다고한다

三老會主催로 故吉牧師永訣式

崇專講堂에서擧行

【平壤支局電話】 조선기독교회최초의 목사로서 각방면의 신망을밧고잇든 길선주(吉善宙)목사의 영결식은 삼일오후 령시반부터 숭전강당(崇專講堂)에서평양, 평서(平西), 안주(安州)세로회련합주최로 성대하게 거행하게되엿다 렬구는 이 세로회대표자와 숭전신학교 남녀성경학교 숭중(崇中)숭인상업(崇仁商業)숭현학교(崇賢學校) 숭덕보통학교(崇德普校) 각학교생도의 행열에호위되여 이날오전 열한시에 상수구리(上水口里) 삼십삼번지 고인의 자택을 떠나서 리향리(里鄕里)청년회원이메고 숭인도로로나와서 상수구리를 도라서 종로서문통을 지나 숭전강당에 도착할예정이라한다

朔風……한강 인도교에서

飛行機를搭乘코 皆旣日蝕을觀測

明年北海道에서나타날天變

中央氣象臺의計畫

【東京電話聯合】 내년 유월십구일 북해도(北海道)북부에 생길개긔일식(皆旣日蝕)에 관하야 일본학계에서는 총동원하야 유감업시 관칙을하고저 만반준비를 진행중인데 이번의 천재일우(千載一遇)의 일식관칙에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비행긔를 사용하야 고층대(高層帶)로부터 관칙키로 결정하야 전세계학계에서 그성과를 긔대하고잇다 고층관칙은 중앙긔상대(中央氣象臺)의 계획으로서 문부성에서도 이를 극력후원하고잇다사용긔는긔상대가 현재 고층긔상관칙을하고잇는정강현 청수시(靜岡縣淸水市) 에잇는 『살브송』 긔로근안(根岸)비행사가 조종할터이며 가티탑승할사람은 중앙긔상대긔사관구(關口)박사와 사진긔사로서 관구박사는긔상에 최신과학을자랑하는 관칙긔를실코 약오천메돌되는 고층대로부터 관칙사진을촬영하야 지상의 관칙대와아울러 연구를 하기로되엿다

殊常少年은窃盜

이른날 오전열한시쯤되여 부내 룡산서(龍山署)원이 삼판통(三坂通)오십오번지 압헤서 수상한소년이 외투와 『스푸링·코―트』각한벌을 억개에걸머메이고 지나가는 것을보고 그서로데려다가 취조한바 이소년은 부외아현리(阿峴里)팔십오번지 리규암(李圭岩)(一七)으로 오늘오전열시에 삼판통사십팔번지 좌좌목항(佐佐木港)이란사람의집에 담차게 드러가서 훔친것이 드러낫스므로 다른죄가 또잇슬가 해서 지금취조를 하는중이다

조선아 잘잇거라! (귀국하는 어비슨박사와 며새―지상=전송군중=하)

洋服店看板걸고 先約金橫領專門

엉터리로注文만바더가지고

月給쟁이울리는惡"테일러"

허울조흔 양복점간판을 번지레하게 결고나서 뭇사람들로부터 외투양복등의 맛침옷과 곳치는것들을 마터가지고는 모다 들어먹고 다러나서 겨울사리옷 준비에밥분 월급쟁이들을 울리고잇는 못된"테일러"――부외룡강면현석리(龍江面玄石里)이십사번지 박종원(朴鍾遠)(三)은 지난팔월에 부내미생정(彌生町)일번지에서 흥룡한가가채를 빌어가지고 양복점간판을 버젓하게 걸다음 밋천도별로업시 못사람들의 양복주문을 바터가지고 예약금으로 받는돈은 모다 써버린후 이날저날 끄으려오기를 상습으로해오든중 지난달그믐께는 미생정이번지최명기(崔命基)(三)라는사람으로부터 양복예약금으로 이십원을 받는것을 비롯해서 전후이십여명에게서 양복외투등 약오백여원어치를 마터가지고 모다주색에 써바리게되여 뒤가드러나게되자 이른날새벽세시쯤되여 가가에 설비햇든 물건들을 모다 어데로몰래 숨겨바리고 자취를감추어버렷스므로 이것을탐문한 소관룡산서(龍山署)에서는 만주(滿洲)쪽으로달어난형적이잇다해서 지금수배엄탐중이다

西氷庫普校의 九個年記念式

【京南】 지금으로 부터 이십오년전 외래의 신사조(新思潮)가 몰려드러올때 당시한국 궁내부대신이든 리재극(宮內大臣李載克)씨가 비로소 신문화교육을 입으서빙고(西氷庫)에다가 창립한 지산화교(芝山學校)는 그후 리경석(李敬錫)김영국(金永國)유길준(兪吉濬)씨등 당대현명한 대신들이 교장으로 력임해 내로오다가 지금으로 십번전에 농학박사 좌등호차랑(農學博士佐藤虎次郞)씨가 이화교교장으로 잇섯는데 금호문(金虎門)사건에 당시재등총독(齋藤總督)으로 오인되여 송학선(宋學先)에게 피살을당한 이후 금기야 존폐기로에 허매이게된것을 또한 그곳유지인김제풍(金濟豐)씨와 백두현(白斗鉉)씨의 활동으로 지사화교를 서빙고보통학교(西氷庫普校)로 고친후 벌서 구회졸업생까지를 내엿다한다 십이월 삼일은 동교의 구주년긔렴일으로 그를 축하하고저 당일오전십시부터 모교강당에서 아동들의 학예회를 개최한다는데 일반 학부형들은 다수참가하기를 바란다고 한다

結氷압둔對岸에 土兵團出沒頻頻

一日平北昌城對岸에서도交戰

國境三道警備陣强化

압록강과 두만강의 결빙을목전에압두고 국경삼도의 대안에산재한 공산군 반만군기타 토병단은 무긔와 군자금 식량등을 략탈하려고 조선내의 칩입을계획하고 잇서 최근 수일동안에 평북대안과 함북대안에는 그들의출몰이 빈번하야 국경제일선 경비긔관은 비상히 긴장하고잇다한다 특히 금년에는 동변도(東邊道)일대에 집결하여잇는공산군들을 관동군에서 대토벌을방금하고 잇슴으로 토벌대에쫓겨서 분산된 소부대의 무장단이 조선내에 칩입할긔색이 만흥듬를론이라하야 경무국에서는 국경삼도의 경비를 금년에는 특히 강화하고 잇섯든터이라한다 그런데

▲이십팔일에는 평북대안 관전현 자창구촌(寬甸縣子倉溝村)에사는 만주인 라전지(羅殿志)의집에 애민구(愛民九)군의 합류병단 이십여명이 잡북하엿다는 정보를듯고 평북창성(昌城)경찰서 창평(昌坪)주재소 하내(河內)순사 부장이하 세명이이것을 정찰하려고 월경하야 탐사중 별안간에 민가에 숨엇든 무장단은 경관에게 발포하면서 도망하야 별로손해업시 격퇴를하엿다

▲일일오전 십일시반경에 평북창성(昌城)서룡두(龍頭)출장소 최(崔)순사외한명은 대안관전현 소황구자(小荒溝子)에서 용의만주인한명을 취조하랴한즉 난대업시 소총과권총을 휴대한 무장단칠명이나타나 교전약삼십분만에 무장단한명을 사살한다음에·무장단은 권총한자루 탄환칠발외사정을 버리고 도주하엿다한다

한글綴字法 批判講演會

조선문기사정리기성회(朝鮮文記寫整理期成會)와 조선어학연구회(朝鮮語學硏究會)의 공동주최로 오는 나흔날오후일곱시부터 우내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中央基督靑年會)대강당에서 다음과가티 한글철자법비판강연회를 열터이라한다

司會 尹致昊氏
朝鮮文記寫法에對한運動의經過 經濟學士 李肯鍾氏
硬音에對하야 徽文高普敎員 丁奎昶氏
朝鮮語와한글 大東商校敎員 金喜鎭氏
한글新綴字法의不合理 世專敎授 高明宇氏

醉漢에게巡査逢變

이른날 새벽한시가량되여 부내룡산서(龍山署)최(崔)순사가 부외 공덕리(孔德里)백사십삼번지압흘 지나가다가 어떤수상한자네사람이 길엽헤모혀안저서 무엇을 밀의하고 잇스므로 붊심검문을헤든바 이자들은 술들이몹시취해서 잡담을제하고 덤벼드러 힘을 합처가지고 때려서 얼골기타여러곳에 상처를입히고도망하는것을 지나가든사람들과 협력하여 붓잡엇는데 그들은 부내 금정(錦町)십번지 마차군 김태욱(金泰玉)(三)가튼동리 백팔번지 고무신행상 김원복(金元福)(三)외두명으로 서에서는 각각 구류스무아흐레식에 처햇다한다

蘇大型飛行機墜落

【莫斯科三十日發電通】 삼십일막사벳트측정부 시험용대형비행기 『지그―제』일호는 모스코시외에서 저공비행중에 돌연추락해서 탓든사람 여섯명도 기체와함께 운명을가티햇다고한다 정부에서는 곳그원인조사를위하야 특별위원회를 임명하엿다고한다

同德女高音樂會

부내창신동(昌信洞)동덕여자고등보통학교(同德女子高等普通學校)에서는 오는사흔날 즉화요일 오후일곱시부터 장곡천정(長谷川町)공회당(公會堂)에서 그학교생도들의 음악회를연다는데 음악을장려하는의미로 일반의 만흔참관을바란다한다

僞造招待劵을 劇場압헤서發賣

連累者도相當히多數

이일오후일곱시경에 시내인사동(仁寺洞)에잇는 조선극장(朝鮮劇場)입구에서 리천(利川)자동차부조수로잇든 한모(韓某)(二九)가 마츰 조선영화로 그극장에 인끼를끌고잇든 춘풍(春風)의 관람초대권을 가지고 입장하려다가 그것이 위조품인것이 탄로되데 발이잡히여 소관종로서(鍾路署)원이 즉시활동을 개시하야 장본인인 시내 익선동(益善洞)일백오십팔번지 신긔운(申基雲)(二九)과 시외신설리(新設里) 팔십일번지 박동훈(朴東勳)(二八)을 검거하여다가 서에서 엄중취조중인데 그들의 배후에는 상당한 도당이 잇서 오래전부터 시내각극장압헤서 과일과군밤장사등을 하면서 다수의 위조초대권을 발행하야 반액으로 판매해오던것으로 그 피해가 막대하다고 한다

運動競技

올림픽氷上代表 釜山을通過

一行은元氣旺盛

【釜山支局電話】 世界氷上올림픽大會에 出場하는 三勇士 金正淵, 李聖德, 張祐植三君은 二日午後六時에 釜山體育界關係者와 밋釜山本報支局員의 出迎裡에元氣旺盛하게 上陸하야 暫時쉬인後同日午後八時發車로 釜山을떠나 一路京城으로 向發하엿는데 三日午前七時四十六分에 京城驛에到着할터이다

養正럭비―快勝

總督府對養正高普의럭비戰은 二日午後四時半부터 總督府球場에서 李鍾琬氏審判아래 總督府킥어프로開始한바 結局二十一對三으로 養正勝捷하엿다

養正21 (8…0 / 13…3) 3 總督府

中等럭비總評

普專럭비監督 李鍾琬

第十八回 全日本中等學校 럭비大會 朝鮮豫選戰을보고 感想되는바特히 養正, 培材, 新高, 三팀의活躍을말하야보랴한다

이豫選戰에는 해마다養正이홀노 孤軍奮鬪하여오던데 比하야新興의 培材와國境의雄! 新義州高普의 初登場으로말미아마 大會의 一異彩일뿐더러 가튼同志로서우리럭비界가 나날이 發展하여가는데잇서 깁분現象이다

그러나 總括的으로말한다면今年大會는 처음부터끗까지 豫想을깨트리고 優勝後補養正과 京師가道商과 培材에생각지도아니한敗北으로 優勝의꿈이 깨여진것과 幸運의 京商이 培材와新高를無難히 의여優勝하엿다는것은 大會에잇서서 不運의 養正과 京師의 敗北을 악갑게생각하는 것보단 압프로中等럭비界에技術보다精神的으로 支配밧는 影響이크다는것을 暗示주는것이다

今番豫選戰에 第一優勝後補로 中學級의 超弩級인 養正高普가 無名의 道商에게 敗北하엿다는것은짐으로 울내야울수업는 엄을한事實이다

神宮競技에 今番全日本豫選에優勝한 京商을 十九對零으로보기조케 넘아옷식키고 優勝戰에古豪京師에게 十一―三으로惜敗하엿스나 그實力이 全日本大會豫選에는 반다시 優勝할것으로關係者들에게 第一擊浙의的이된 養正이 豫選戰 第一回에 道商에게 今番大會 最初의 延長戰이라는 記錄으로 九對六으로 慘敗한 그原因은 아모리 冷靜히 생각하여도 理解할수업는 일이다 그러면 엇지하야 意外의 敗北을 하엿나? 養正으로서는 道商의 意外의 猛烈한 追擊으로 생각지도 아니한苦戰을한것은 事實이다 結局延長戰까지 行하야 九…六이라는『스코어』로『씨소게임』가티생각하나 養正으로서는 完全히 一敗塗地하엿다 優勝候補라고볼수 업는만큼 거기에 相伴하는 充分한 實力을 가지고 잇는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未完成인 道商때문에 優勝의 꿈을 깨트려진 그原因이 奈邊에 잇섯든가 技術的方面으로 말을 한다면 道商과가튼 體力을 가진 팀에 對하야는 될수잇는대로 迅速하게 『스크럼』에서 離脫하야 『파스』로서 相對의 陣形을 攪亂케하는 戰法을 取하지안흐면 아니된다는것은 말할것도 업거니와 養正은 너무나 正面으로 衝突한 傾向이잇섯다 例를 들어 말하면 『노막크』가 되여잇는데도 不拘하고 球를 너무 가지고 引으로 突入하거나 或은『헨드업』을 썻나는것은 큰 愚策이엿다 그러나 養正을 實力을 가지고 今日의 戰法으로서도 더욱 勝利하엿슬것이다 그러면 엇지하야 敗하엿느냐? 이것이 내가 말할랴하는것으로서 即 精神的方面의 缺陷이다! 養正은 勿論 優勝할것을目標로하고 또 自信도잇고 實力도 잇섯든것이다 覇權을잡기爲한 最後의것은 京師를打倒식히는것이다 即養正의目標는 京師에잇고 道商은敵이아니엿든것이아닌가? 普通말하기를『敵을너무얏보앗다』고말하나 나는 그以上깁히생각하고 십다 即打倒京師때문에『에너르기』의蓄積와 或은負傷이라도하면하는 非常히 消極的의생각이 選手間에잇지아니하엿든가? 이와反對로 道商은아무러케하여도 敗할것이니깐 마음노코 最後로 싸워보겟다는 自棄의心理로마음것싸운데에서 여기에今日의結果를내인것이다 養正은前半에너무 得點이적엇든것이 後半에苦戰을 演出하게 되엿든것이다 養正의 『트라이』二個의 六點에對하야 道商은 幸運의罰蹴二個로 六點을어더 六…六으로同點이되여 延長戰이 되엿든것이다 이리하야 延長戰에貴重한道商의『트라이』로運命을 決한것이다 後半이되여 時間이切迫한것을알고 비로소 이기지아니하면 二回戰에 나가지 못한다는 精神的으로 焦燥하엿스나 그때는 벌서 느젓다(續)

＋1935年度＋ 男女朝鮮陸上三傑【二】

◇六十米競走
1、鄭仁愛 八秒一(平壤女高)
2、姜寓安 八秒七(京城女高)
2、李相娥 八秒七(同 上)

◇八十米障碍
1、金善一 一四秒八(平壤女高)
2、金壽福 一五秒八(進明女高)

◇百米競走
1、鄭仁愛 一三秒九(平壤女高)
2、李相娥 一四秒 (京城女高)
3、金英子 一四秒一(同 上)

◇二百米競走
1、金泳喜 二九秒三(同德女高)
1、金化善 二九秒三(平壤女高)
3、安玉禮 三〇秒 (同德女高)

◇四百米繼走
1、五五秒二(金化善 金聖 金節 鄭仁愛)(平壤女高)

◇六百米競走
1、金禮寶 六九秒五(平壤女高)
2、許 菊 七二秒一(同德女高)
3、尹完姬 七四秒二(同 上)

運動界集會

▲全日本럭비大會 朝鮮豫選에 優勝한 普成專門과 京城商業優勝祝賀茶話會는 大每京城支局主催로 午後七時부터 本町明治製菓上層樓에서 開催

一大投賣斷行 辭典拾冊 合本ぺタの一圓 分冊は各十五錢
法律百科大辭典 常用漢和大辭典 いろは引大辭典 現代新語大辭典 手紙百科大辭典 英語獨習大辭典 文章百科大辭典 五分間演說辭典 社交常識辭典
特別景品 無代進呈 模範日記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區本川町 振替大阪五六〇一四番 現代出版社

●男女共に心得べき! 諸禮法 婚禮式 世間百般 挨拶の仕方 空前の寶典
特別景品 博士性典 大特價一圓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區本川町 振替大阪五六〇一四番 現代出版社

▲そろばん下手では出世が出來ぬ 新式速成珠算獨習の秘訣 ▲圖解で極意公開!
大景品 詳解九九原理 珠算原理速成術 極上等算盤 特價一圓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區本川町 振替大阪五六〇一四番 現代出版社

一種五圓十圓で敎へた秘法盡く公開!! ◎今まで他に類のない寶本! 萬國不思議秘傳秘法大寶典
本書內容目次の一部分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區本川町 振替大阪五六〇一四番 現代出版社

百餘名檢擧者를낸 第三次共青同盟事件

定平署의留置者取調開始로 年內取調段落送局?

【咸興】지난 팔월경에 발견(反戰)데이를 기회로 함주군내에서 제삼차(第三次)공청(共靑)사건피의자로 청년백여명을 일시검거하엿다가 함흥, 정평경서에 분리류치하고 엄중히조사중이든바 함흥서에 류치한 오십여명의 개략적취조는 거이다락이되모양이며 멧칠전부터 함흥서 고등계주임강전(岡田)경부이하 동계원수명은다시 정평서도 출장하여 동서에 류치하고잇는 삼십여명의 취조에착수하엿다는데 금년내로는량서에 류치하고잇는 구십여명의 전반취조를 끗마치고 송국하리라고 추측된다고한다

長湍農實校落成

【長湍】경기도 장단[illegible]교는 종래진남공보교(津南公普校)교사를 리용하고잇든 관계상 협착하고 불편함이 만흔데 금번동교를 신축하게되야 수개월전부터 건축공사에 착수하엿든바 그간공사는 순조로 진행되여 지난일일경오에 동교에서 관계당국자와 군내유지 백여명을 초대하야 락성축하회를 성대히 거행하엿다고한다

全州府初會

【全州】제일회전주부회는 지난이십구일오전열시에 부윤고당(高堂)씨의개회로 막이열이엿다 의원의의석결정과 의안제일호부터 오후까지 입사천리로 채결한후 좌긔임원제씨를선정하고 동오후여섯시에 폐회하엿다

全州府副議長久永麟一 第一敎育部副長明石錄助 第二敎育部副議長印昌植

편이나 억울합니다 저는이런것에대하여 아무것도 몰읍니다만 소위정조검사는 생산자를 옹호한다는 표방으로나온것이 오히려 정반대의 손해만이대할뿐입니다 이번에도검사를하여 성적은 나엇스나때우나 억울합니다 운운

全州基靑定總

【全州】전주긔독교청년회에서는 지난이십구일 오후일곱시에 시내서문밧유치원에서 동회정긔 총회를 회장신현창(申鉉彰)씨의 개회로 시작된후 좌긔임원을 선정하고 오는크리쓰마쓰 축하준비에대한 결의와 명춘부터 농촌운동과종교강연등을 토의한후 동아홉시에 무사폐회하엿는데 전총무신동긔(申東起)씨로부터 과반전조선안에잇는 시긔청(市基靑)총무회에서 결의한 의안을보고하엿다고한다

▲會長申鉉彰▲總務裵寶石▲宗敎部長金泰福▲庶務部長黃根洙▲體育部長趙䋭▲智育部長金

東海水産出現으로 西湖漁村에波紋

數百年傳來의生存權에脅威 漁民間物議漸次沸騰

【興南】함남서호진은 수백년래로 단지 바다에생명을 걸고사는어민과 그생산품을 소화식히는 일부매매업자들이 살고잇는땅이다 그런데 작년도에 명태어에 수확이적엇고 기후의괴이함으로 이중삼중으로 곤난을당하고잇는데 말성만흔 동해수산주식회사(東洋水産株式會社)가 서호에 영업진출하게 되여 그들주민의 생존권에 위협을 늣기고잇스므로 일부서호진 주민은엇떠케 해서든지 이난관을 돌파하고저 매일매야 모여서 협의중이나 별로묘한 방법을 발견치못하고우수중에 잇는데 당국으로서의 엇더한 해결을 지어주기만 기다리고잇다한다

▲柳家兄弟美擧

【井邑】정읍군립암면 천원양소장(笠岩面川原場道場)주인 류병근(柳秉根)씨는 동면하부리(下富里)오동선(吳東善)이라는 자긔의 소작인이 지난달일일에 초옥오간일동을 모조리 불에태여버리고 의지할곳이 업서서 어린처자를 다리고 살길이 막연하여서 눈물과한숨을 뿌리고 불행의운명을 저주하고 잇는것을 참아 사람으로서는 볼수업서서 자긔가 오씨에게 바틀 금번소작료 삼십오두를 량감하여주어서 다시 집을 짓도록 하여주엇고 동면단부리 류병긔(柳秉淇)씨는 또한 그저불수가 인정상 업다하야 사간 지을 목재(木材)를 지급하여 주어서 방금 긔공중에 잇다는바 사경에서 회생하여 나는 전긔 오씨는 물론 전군면내 일반들은 전긔 류씨형제의 미거에 대하여 칭송이자자하다한다

發電所逆流水問題로 住民代表又復抗議

會社當局善處言明?

【咸興】장진강수전회사(長津水電)제일호발전소에서 역류하는 다량의 물로인하여 함주군 하긔천면(咸州郡下岐川面) 중앙을 관류하는 흑림강(黑林江)이 범람하여 동면일대의 교통이차단되엇은 물론하고 주가까지 침수의위협에 직면하게되엿다함은 긔보한바이어니와 그후 도당국에서도 이를중대시하여 실지조사원을 파견하는동시 회사당국과 그대책을 타협중이든바 지난이십팔일 다시 관계주민 유병옥(尹秉旭)외 오백사십구명이 련서한 진정서를 가지고 전긔윤병옥외수명이 대표로 동면동흥리(東興里)에잇는 회사사무소를 방문하고 책임자에게 진정하엿다는데 회사당국에서도 공사전에 이미 흑림강(黑林江)개수로 언약한일도잇섯슴으로 제방축성과 교량가설할것을 응락한모양으로 근일중 실지측량을 할터이라는데금후 말성만흔동문제도 무사히해결될는지 회사의 처치여하가주목을 끌고잇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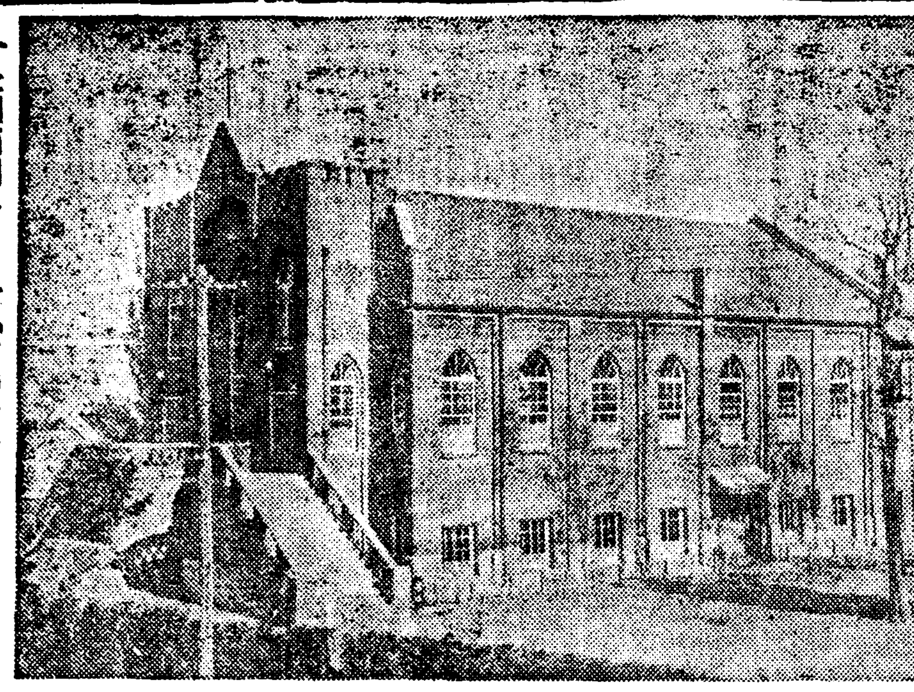
행한다하는바 수천의 림수자들은 큰타격을 당하게 되는동시에 적지안흔 사회적문제가되리라한다

被害는生産者뿐 正租檢査反對聲

綾州郡下의人心洶洶

【綾州】지난십월일일부터 실시된정조 검사제는 소위생산자를 옹호한다는 스로간으로 표방한것이 결과는이에정반대로 피해와 손해는막대하여 각지방농촌세민들을 울니게하여 날로 논하가는것이 정조검사의 반대성이다 지난이십륙일리양(梨陽)에서 검사하러온 석수는 약칠백여석이나 검사원부족으로 검사는불과 삼백석에 지나지못하엿다남어지에대한 세농민의 손해는다시 론할 필요도업고 검사는 합불격을 시김으로 세농민들은 일대고함을 지르며 불평하다고 일대란투의 수라장을 일우는등 야단법석을 연출하엿는데 일반생산자들은 당국의선후책이 잇기만 날로긔대하며 여론이자자하다고한다

生産者 某氏 談



全州西門外! 禮拜堂獻堂式

【全州】구천여원의 공사비로 신축된 전주서문밧례배당은 그동안 완전한공사를 필한후 지난삼일 일오후세시에 성대한 헌당식을 거행하엿다한다

漁港西湖津의活況

毎日生産高一萬七千餘圓 作業人夫八千四百名

【興南】함남서호진항은 명태어긔가 되면 각지방 어업자들이 모여 실로 어항(漁港)으로서의 진면목을 나타내고 잇는바 금변도 례년에 지지아니하는 풍성풍을 예상한 경긔를보여 주고잇다 이제 서호어업조합에서 조사한바를 보건대 현재명태잡이를하는배가 삼십척 매일수확고가 사백여태라고 하는바 이를매바리(駄)삼십칠원으로 환산하면실로하로에 일만칠천여원에 달한다 그리고 명태시절에 작업부로 동원되여부의 수효가 팔천사백여명에 달한다는바 저들은 명태긔에 벌어서 그이듬해 여름까지 먹을식량을 예비하는 봉상한 사람들이라한다 그외에도 명난(明卵)을가공(加工)하는니 창난(明太腸)을손질하는니 실로그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성황을 일우고잇다한다

京仁柔道試合

延專遠征隊와 四日仁川武道館서

【仁川】근일 경향각지방을 몰론하고 무도에 대한 장려가성행됨을따라 경성 연희전문학교 유도부(京城延禧專門學校柔道部)원십오명이 전조선각지를 순회하는중 오는 사일은 인천에서 새로건축된 최신식외리(外里)도장에서 동오후칠시부터 경인유도시합을개최하리라한다

關東州管內서도 銀賣買를制限

來十日부터實施

【安東縣】관동주와 철도부속지내에서는 은매매자에게 대사(大使)의 허가업는자에한하여 백원의 벌금과 일년의징역에 처하기로 되여 십이월십일부터 시

災害瘡痍도未愈에 水組費引上은不可

實情을떠난當局의暴擧라고 密陽四個水組猛反對

【密陽】경남밀양(密陽)군내의오개소 수리조합중 부북(府北)수리조합을 제외한 하남(下南)초동(初同)、밀양(密陽)、밀양제이(密陽第二)등 세개 수리조합은 작년재작년량년간 대수해로 막대한 피해를입고 그중에는 재긔불능 정도에까지 이른것들도 잇서 수리조합정리 갱생계획발동으로 근근 복구 갱생함을 어덧스나 천신만고를 무릅쓰고 지어노흔 금년농작역시 풍재와 충해로 수확은 평년작의 칠할밧게 안되여 그간농비 비료식량등에 집머진 채무반환도못하야 허덕이는 이판에 지난번 경남도에서 문제된 금년도의풍작을 예상으로한 수리조합비인상이 재지인 밀양군내 각수리조합에도 적용하기로되여 하남(下南)과 초동(初同)은 각오할 밀양제이(密陽第二)는 이할 밀양(密陽)은일할오부 부북(府北)은 일할의 인상이 내시되엿다는데 이것을 알게된 각수리조합 지주급소작인들은 이것은 조합원의 실정을 모르는 폭거라하야 전긔 하남 초동 량수리조합과 하남면(下南面)에서는 총독이하 각요로 당국에 조합비인상의 불가능함을 진정한바잇섯스며 부북(府北)수리조합에서는 지난이십이일 조합평의원회에서 인상을 단연부결하여 밀양에잇서서 수리조합비 인상문제는맹렬한반대의 암초에 걸리고말어 바야흐로 조합비 징수긔일에도 불구하고 각수조당국은 문제가 미해결대로 잇는만큼 고지서도 발부치 못하고 공수하고 잇는 현상이며 지주급소작인은 상환긔간을 느리더래도 조합비인하를 감당하고 잇는터인데 도로혀 그와가티 인상한다함은 민의를 모르는 무모하기짝이업는 정책이라하야 당국은 속히 수조비 인상안을 철회하야 민심을 수습함만 갓지안타고 부르짓고 잇다는데 동인상안이 철회치 안는다고하면 중대한 사회문제가 될 우려가 농후하다고한다

音樂會大盛況

【安東縣】안동현 보통학교에서는 지난 이십구일 오후일시부터 수천명의 학생과 학부형을 초대하여 동교강당내에서 음악회를 성대히 거행하여 한부형에게 만흔 위안을 주고 삼시경에 폐회하엿다한다

鴨江의結氷따라 密輸線上에異狀

國境惠山鎭稅關防備에躍起! 密輸品엔人蔘이리드

【咸興】함남지방의 압록강(鴨綠江)은 수일전부터의 혹한으로 완전히 결빙되엇다는데 벌서부터 대안으로부터 밀수업자의잠입이 극빈하여 혜산진세관(惠山鎭稅關)에서는 소장이하 총동원으로 이의 방지에 진력하고 잇다는데 밀수품의 대부분은 무송현(撫松縣)방면으로부터 인삼(人蔘)을 밀수한다고한다

따라 지난삼십일에 경상남도내 무부장이하 지방유지급 간관공 서백여명의 참석하에서 세며 준공식을 거행하엿다한다

奉化郡下에大火

家屋十八間一戶全燒 穀物六十餘石燒失

【奉化】지난 이십칠일 하오구시경에 봉화군 재산면 현동리(才山面縣洞里) 박학선(朴學先)의 집에서 불이 일어나서 인접안올 둘러쌋는데 때마츰 부러오는 바람으로 인하야 것잡을 사이도 업시 맹렬한 불길은 기둥 한개 남기지 아니하고 모조리 태워버렷다 집안에는곡물(穀物) 백륙십여석중에서 삼십여석밧게는 끄내지못하고 가구일체를 하나도 남기지 안코 소실되엿는데 모두 합하야 손해는 천여원이라 한다 집을일흔 가족들은 하늘을우러러 통곡할 따름이라 한다

金海邑上水道 竣工式大盛況

【金海】김해읍민의 중요문제인 상수도는 작년오월에 총공비사만원으로서 공사에 착수하엿든바 금번구월에 공사를 마치에

泗川郡主催로 夜學講師講習

【泗川】경남사천군(泗川郡)에서는 군내 무산아동의 문맹퇴치(文盲退治)긔간인 야학 강습회의 교수방법등 합리화를 강습식히고저 야학 강사(夜學講師)일백십륙명을 총소집하야 지난이십륙일 오전구시부터 사천공보교(泗川公普校)강당에서 야학강습회(講習會)를 사일간 개최하엿다하며 제사일인 이십구일오후에는 백십륙명에 대한 강습증(講習證)수여식을 마첫다는바 금후농한긔를 리용하야 아직 미설된부락마다 야학회를설치식히고 문맹퇴치운동을 철저히 행할방침이라한다

泗川産業組合 創立總會開催

來十二月十日에

【泗川】경남사천산업조합(泗川産業組合)은 얼마전에 인가되여 제반사무를 착착진행중이라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조합원모집과 불입금이 거이완료되엿슴으로 그창립총회를 오는십일에 개최키로되엿다는바 군내에 산재한 조합원들은 빠짐업시 출석하기를 바란다고한다

◇寫眞……(上)平壤[illegible]에 [illegible] 選手一同 (下)[illegible]와 [illegible]

一時中止說傳하든 大豆工場明春着工?

試驗成績에마츰내自信을어더 從業人員無慮七千名

【咸興】야구(野口)재벌에서 작년이월경부터 대구화학공장 소요용지로 본궁(本宮)에 일거륙십만여평을 매수하고 대두(大豆)공장을위시하여 「카—바이트」조달(曹達)공장등 륙개공장을 설치한다고하며 일세를 압도케하든바 그중가장중요하고 거대한 공장인 대두조미료(大豆調味料)제조공장은 그제조방법 시험성적이 불량한원인으로 일시중지를 선언하게되어 또다시 전조선의 이목을 집중식히는동시 함흥상계(咸興商界)에는 비상한 속고를 던지엇든바 그후 동회사에서는 제조방법에 대하야 홍남조질공장(興南朝窒工場)내에 그연구소를두고 예의연구를 거듭하고잇든바 요즈음에이르러 수차시험한성적이 극히 량호한모양으로 드듸여 최후적자신을어더서 해공장을 설치하기로 결정된모양으로 늣저도 명년삼월 해빙긔에이르러서는 공장건축에 착수하리라고 전하는데 해공장은 그규모가 극히 거대하여완성이후의종업원은 실로칠천여명의다수가된다고하며 현홍남조질공장보담도 약배나 더굉장하다고하는데 그 방게공장인 조달(曹達)공장은 일일부터 작업을 개시하엿다고한다

道路鋪裝工事에 新舊街差別非難

新市街十二線은竣工

【平壤】평양부에서는 근대도시화계일보로서 위선가두(街頭)부터 정비키로 되여작년도부터 주요간선도로의 포장을 급속히시행하고잇서서 금년도에는 십일만원의공사비로 신시가만을 주안으로 면변되지실을 하더니십삼선은 준공되엿고 남은이선도 급급한 시공공작을 하고잇다 이제준공이된 십삼선을 조사해보면 다음과가타서 얼마나신구시가의 차이가 잇다는것을알수잇다

▲平元橋—大神宮間▲大和町—道廳間▲鐵道호텔—府廳間▲八千代町—鐵道호텔間▲櫻町通▲壽町通▲壽町—大和町間▲黃金町—旭町間▲新倉里間▲新倉里—上水口里間▲南門町—大和町間▲將別里—驛里間▲下水口里—上水口里間

그런데 명년도에도 다시 제이긔도로 포장이실시될 모양으로 그공사구역이 어떠케 결정될지 주목되여 신구시가의 명암의 차가 철폐되기까지에는 부당국의 솔직히 신구시가를 일률적으로 생각하는 아량이 극히필요타한다

立石强盜逮捕

【立石】지난이십칠일 오후일곱시 평남평원군서해면 사산리(平南平原郡西海面蛇山里)김병개(金秉介)는 그날이 마침 립석(立石)장날임으로 장에와서 벼판돈이십여원을 가지고 술이취하여 집으로가는중 립석서 삼변령되는 압고개에이르럿을때 어떤수상한 청년한명이 낫다나 주소와성명을 물으며 동행을청함으로 약 일정가량동행해 가다가 괴한은 전긔 리병개에게 달려들어 얼골기타여러곳을 난타하여 현장에 쓰러지게한후 호주머니를 뒤여가지고 도망해버렷는데 급보를 접한 소관서에서는 범인을 엄사중 지난삼십일에 무난체포하엿는데 범인은 안주군 립석면 립석리(安州郡立石面立石里)구십일번지 우차부(牛車夫) 리춘빈(李春彬)(二六)으로 판명되엿다한다

地方人事

▲全命圭氏(朝鮮生命保險西鮮支社長)新任人事次本社平壤支局來訪
▲車用輻氏(同平壤支部長)同上
▲尹順女女史(全南木浦府大城洞婦人契長)來弁人事次本報弁邑支局來訪
▲林光玉女史(同契會計)同上
▲申鴻均氏(齒科醫師)開業人事次本國金海支局來訪

市場敷地買收費

商人側의補助拒絶로 邑當局豫算難에遭遇

【南原】지난二十이십칠일오후칠시 남원시장통상인(南原市場通商人)이십여명이 리근상(李根相)씨집에 회합하야 좌장에전긔리씨를 정한후 정운학(鄭雲鶴)씨로부터 읍장(邑長)의 루차내탁한바라하야 아래와가티 회합의취지를말하엿다=금춘 시장(市場)문제가 이전설까지 대두되엿섯는대 다행이 세무서광주감독국과 루차 절충한결과 시장부지를 매평당이원예산으로 그대까만큼 광주감독국신축부지를 매수해주기로 교환적매매가성립되엿는데 매수하게되 광주감독국부지인즉 그지방민간의소유관계상 일단남원읍으로 이전수속을 해가지고광주감독국으로 넘겨주어야 사무상 형식이 마저진다한다 그래 이러한 비용 륙백원가량을 내놀 읍당예산이 업서서 남원읍으로서 일대암초에 조우하게되모양이니 시장안정으로 인하야 리면동리를 하게된 일반상인측에서 륙백원을 부담하자는것이엿다 그러나 좌중 다대수의반대리유가 속출하야 륙백원문제가 족석에서 말쇄를 당하여버렷다는데 읍당국에서 과연어떠한 수단으로 처리해나가라는지 매우 주목된다고 한다

毎日千桶移出

【興南】함남서호진은 명태어어의 산출과 아울러 그부산품 내외각지에 그일홈이 놉다 명태로녕란의 수확도 무척늘어가는바 작금서호진역에서 일본행피리표를단 명란통이 천여개식되는바 이것도 수국북선의 면목을 여실이 나타내고 잇스며그가격은 현지가격으로도 매통에 사원식이라고한다

少年軍創立記念

【忠州】충주소년군에서는 창립후제사주년을 마지하는 지난십일월 이십칠일에 단원전체가집합하야 성대히 긔념식을 거행하는동시에 여흥으로 활동사진대을 초빙하야 일반의 관람에 공하엿다한다

大邱 申不出漫談大會

▲時日 十二月五日午後七時부터
▲場所 大邱公會堂
◇主催 朝鮮日報社大邱支局
◇後援 東亞堂本、支店

여윈몸弱한身體를 憂鬱히悲歎하는분은

養生으로도로혀 튼튼하고肥大해진感謝와 感激하는사람의體驗을들으라

◉貧血虛弱으로冷症잇는人은
衰弱하야 치위를 심히타며身體에 活氣가업스면 感氣도 잘들고 여러가지 病이 일어나고婦人은 流産이나 早産하기쉬우니 爲先胃腸의機能을 튼튼하야 健全히體富토록힘쓰는 것이 肝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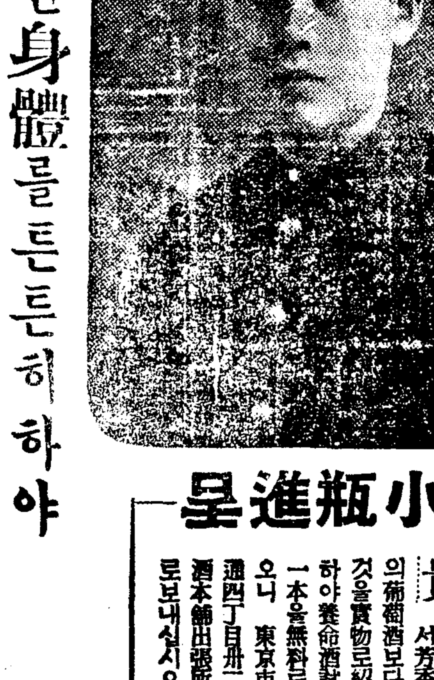
◉血液의循環이조치못한분은
手足이 冷하야 머리가압흐며 억개가 결이고 왼몸이 節節히 압흔사람도、生活力을 旺盛케하야 血液의 循環을잘식이며 그전과아주달으게健康해지며살빗까지조와집니다

◉夜間에時時로小便을보는분은
小便이 자진것은冷하야 內臟의機能이 衰弱해젓기때문입니다 身體의내부로부터 땃뜻한 活氣를 일으켜보시요 小便도 멀어지고 잠을도아주고安眠이되야 머리가 매우明快해질것입니다

◉當場에體驗해보시요
前述한바와 如히 身體가弱한여러분、滋養强壯劑로 實로貴重한 養命酒를 朝夕으로 조곰式、養生키 爲하야 愛飮하면、實로 이만치、身體를爲하야 조흔것은 처음이라고 참으로 感心하고、異口同言으로漸漸 評判이되여 世上에 有名해저가니、身體가弱하야 悲歎하는 분들은 果然 엇더한가 一次體驗하시요

弱한身體를튼튼히하야 겨우就職한깁붐에滿悅하야

樺太 塚田文郞



나는 本年一月에 某會社에 入社의 希望으로 採用試驗을 보게되어 醫師의 健康診斷을바든즉 身體의 이것저것 病은 업지만 身體가 榮養不足으로 虛弱하다고하나 종에는 애씨든 本意도업시 就職도 못하고 大端 悲觀하고 잇섯습니다 하나 紙上으로 養命酒가 弱한 身體에 조타는것을알고 여러가지 榮養劑를 먹어도 効果가 업서서 困難하든次에、速히 買求하야 飮用한즉 飮食에맛이조코 食事도 大端히 增進하야、身體가 便安하게되며 漸次로몸튼히 肥大하야只今에는 十七貫의 體格으로 되어서 어듸를 나스든지 남붓그럽지 안흘만한 身體가 되엿슴으로 本月十五日에는 以前會社에 勤務하게되어 잇습니다 이것도 養命酒의 德澤이라고 깁히 感謝하야 世上의 病弱으로 苦悶하는 사람들에게 自己의 體驗을 말하야 勸하고 잇습니다

(十年九月二十日受付信書要旨本人)

小瓶進呈

貴重한深山仙酒로서芳香美味上等의葡萄酒보다더맛잇는것을貴物로紹介하기爲하야養命酒試驗用小瓶一本을無料로贈呈中이오니 東京市澁谷區上通四丁目卅二番地養命酒本舖出張所로葉書로보내십시오

滋養强壯劑로……
◆胃腸衰弱한분
◆强腦强精의目的
◆神經衰弱잇는분
◆不眠숨갑분사람
◆呼吸器弱한사람
◆疲勞倦怠한사람
◆貧血冷病잇는분
◆産前産後의婦人
◆根氣薄弱한사람
◆虛弱體質가진분
◆病後恢復期 等等

信州伊那の谷名産 製法日米專賣特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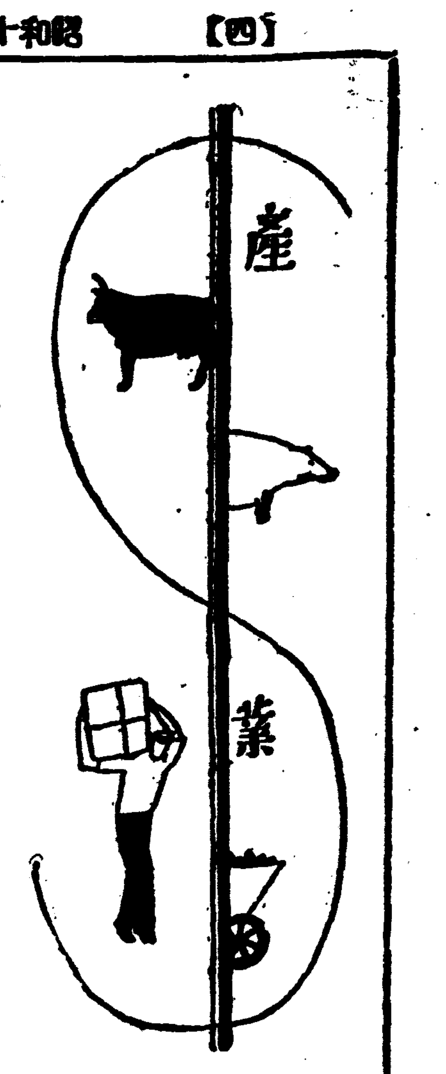
鹽澤家傳 養命酒

携帶用 一圓五十錢 大瓶 三圓 徳用 四圓

◉全國有名藥店、百貨店、食料品店에잇음
品切일때는便宜上東京出張所로注文하시옵
送料無料、代金引換、實費밧슴니다

信州上伊那郡朝日村大草
製造發賣元 養命酒本舖天龍館
東京市澁谷區上通四丁目卅二番地
出張所 養命酒本舖出張所
電話靑山五三九八番 振替東京六八八五五番

注意 가짜가잇스니 專賣特許鹽澤家養命酒의文字에特히注意하시고사시시오



棉花共濟制度는 實現性이薄弱
財政負擔關係로大藏省은難色
總督府는再交涉豫定

棉作振興의 農林局豫算棉花共濟制度는 總督府査定을 마치고 目下 大藏省과 折衝이 進行되고잇는바 大藏省側의 意向으로 傳하는바는 農産物價의 價格補償과 如한은 容易치안흔 至難事라할것이며 假令 擬濟를 繼續하는 境遇를 豫想하면 큰財政負擔을 豫期치안흐면 안되는 危險이잇슴으로 同制度는 조흔 制度임에는 틀림업스나 一考할 必要가잇다 하는듯하야 同制度實施는 자못 難色을보이고잇다 이에關聯하야 山澤農産課長은生産費調査會列席을兼하야 右에對하야 再交涉할豫定이나 目下로서는 同案의 前途는 不安視되고잇다

初冬氣候順調로 벳치生育良好
稀有의大增收를豫想

今冬氣候는 例年보다 非常히溫暖하야 마치 春候에近似한感을 가지게 되는터인데 그影響을바더 各地의『벳치』作況은 空前의好況을 示하야 咸北을除外한 各道는大增收로 豫想하는터이라한다。

從來『벳치』栽培에잇서困難한條件은 初冬酷寒이 襲來하야『벳치』가 幼苗時에 侵害를 바더 結局 成育에까지 莫大한 影響이잇는터인데 今年은 初冬의氣候가 그와가티 順調이어서 벌서『벳치』가적지안케 成長하얏슬뿐만 아니라 인제 酷寒이襲來하드래도 耐寒할만한 程度에 達하엿슴으로 그增産은 確實하다고한다

尙州棉共販出廻 四十五萬餘斤
比昨年三倍增加

【尙州】慶北尙州郡下 今年棉作은 氣候順調로 成績이 良好하야 百萬斤가량 生産되엇다는바 그共販出廻는 三十萬斤豫想이든것이 지난 二十七日까지의 出廻가 벌서 四十四萬餘斤에達하야 昨年同期에比하면 實로 三倍以上增加를 보앗다고한다

各地需要增加 叺界頗活況
新製品이着着出廻

인플레景氣의 影響을바더 朝鮮産叺用及 滿洲叺은 朝鮮內의需要가 激增하엿슬뿐만아니라 旣報한바와가티 滿洲及 日本內地方面으로부터 大量注文이 잇는바 現在農閑期를 압두고 農家에서는 副業으로 叺의 織製準備를 進行中이라는데 全南北、忠南北、慶南北을 비롯하야 各道에서는 叺의 增産計畫에 奔忙中이라하며 그와同時에 各農家에서는 原料藁의 調製及 其他準備를 進行中으로 一部에서는 新製叺이 出廻되는等 자못 盛況을 이루고잇다한다。그리고 今年은 叺價格도 昨年에比하야 一、二割昻騰하여젓슴으로 이方面의 副業은 一層活況을 呈하리라고한다

競馬明年購入豫定

朝鮮競馬俱樂部는 明年의 抽籤馬購入을 如左히 決定하얏는바 明年은 牛島마ー비ー開催에 春秋合計百六十五頭、蒙古種八十頭合計二百四十五頭가 나리날터이다 購入豫定은

▲春期 京城二十五頭 他十五頭 新義州 蒙古種五〇頭 合計百二十五頭

▲秋期 京城三十頭 大邱十五頭 群山十頭 平壤二十五頭 新義州 蒙古種三十頭 合計百二十五頭이다

魚糧의輸出 徐徐히好轉
토마토、써ー진도恢復

海外輸出이 梗塞 就中 米國獨逸의 不振으로 海外輸出이 不採算에 陷入하얏든 朝鮮産魚糧도 그後 環境好轉으로 徐徐히 採算點에 達하고 特히 十一月中旬以降 米國의 荷況도 解消하야 輸出은 好望視되게되엇다 一方 토마토、써ー진輸出도 期初以來 南洋輸出에도 衰退의色을 示하야 念慮되고잇든바 이또한 十月以降 市場이 回復되고 輸出도 旺盛한 勢로 轉하야 水産輸出方面은 此商品의恢復으로 俄然明色을加하고잇다

農家年中行事曆

十二月	全	月	中

大雪 十二月八日 冬至 十二月廿三日

一、過去一年間農家의收支總決算을 내어볼것
一、藁製品의製作
一、果實紙袋類의製作
一、農具藁具의修理及整理
一、貯藏果實、菜蔬의販賣
一、堆肥其他自給肥料의 製作及採集
一、豚의交配

▲備考
一、本表의 栽培時期中 特히 表示한것 外에는 全部 朝鮮中部地方을 標準으로 記錄한것임
二、記事中 特히(南)이라한은 中部以南에만 必要한 作業이고(北)이라한은 西北朝鮮에만 必要한作業임
三、節候의 日字는 一九三五年(平年)을 標準으로하야 全部陽曆으로 記載하엿슴으로 해에따라 一、二日差가생기는때가 잇슬것임
【耶蘇敎長老會總會農村部調査】

굴참나무增産計畫
年生産六十萬貫可能
濫取防止도同時考慮

콜크原料인 朝鮮産의 굴참나무는 朝鮮콜크工業(永登浦)昭和콜크等의 新事業에 依하야 年産額二百萬圓에 達하야 現今 日本콜크需要에 充當하고 그生産은 特殊用大市物의 一部輸入을 除하면거이 獨占으로 되어잇는 바이굴참나무의 自生狀況을 總督府에서 調査한바 江原道淸江上流地帶를 中心으로 二千二萬町步 二百二十萬本의 自生이잇고 十年마다更新하면 年度六十萬貫의 産額을 擧할수잇슴이 判明되엇는데 現在의 生産은 八十萬貫으로 濫獲의 觀이잇다 林政課에서는 이動向에 鑑하야굴참나무의增産을 圖하는同時에이 濫取에 對하야 考慮하고 잇다

콜크工業은 原産地不利
五錢의原料가製品으론二圓

콜크의 生産은 자못有望한것이 判明되엇스나 總督府의 調査한바에依하면 原料는 貫當五錢內外로 販賣되고잇스나 製品으로하면 二圓以上으로되고 또 加工은 格別의 高度操作을 要치안음으로 結局 生産者인 奧地林業者가 顯著히 不利한 立場에잇는것이 判明되엇다

錦山各種競進會

【錦山】지난 二十五日부터 全北錦山公普校講堂에서 農會及敎會主催로 左와如히 競進會를開催하엿다고한다。
一、道競進會
二、水稻品代品評會
四、棉作品評會
五、麥作品評會
六、初等學校競作會

新義州第二産組業績

【新義州】二十七日 新義州第二産業組合事務所及共同作業場上棟式을 擧行하엿는데 同工事는 十月十三日에 起工한것인바 敷地는 府有土地六百十四坪이고 借用建物은 全部五棟인데 事務所 共同作業場、五加工場、倉庫、消毒場、鍛冶等 總經費百四十九萬이라한다 今年에는 事務所作業場만 竣工하고 其他는 明春解氷期를 기다리게되엇다는데 同工事는 組合直營으로 工費總豫算八千六百十圓인바 現在까지에이미 四千五百圓의 工費가 들엇다하며 同組合의 事業은 漸次良好한 成績으로 發展하야 現在의 能力은 折半이 年産五十萬餘에 達하며 工場이 完成되면 顯著한 業績을 내리라한다

薄荷栽培法 ❶
綾州支局 一記者

一、總說

薄荷의 起源을 大略 論하면 上古支那로부터 歐洲로 傳播되여 十八世紀부터 英國에 油製造가 始作되엿고 佛、獨、露의 各國에 傳播되여 現今까지오게 되엇고 日本에서 薄荷의 醫藥價値를 알게되엇슴은 只今으로부터 約三百年前 上城大和地方 野生薄荷를 漢藥淸凉劑로 利用할때부터이다 그러나 一般에 普及케된것은 文化十四年頃 備中門田村人 秋山熊太郞氏가 처음江戶로부터 薄荷種根 數十本을求해서 自作田에 試作한것이 漸次發達하여 商品化하고 約七八十年前부터 薄腦製油及 腦分離를하여 外國市場에 輸出케되엇다

薄荷의 種類는 大槪日本種、西洋種、野生種이나 品種別로細別하면 二十餘種이나 現在 栽培分布狀況은 北海道 山貝地方 栽培面積一萬八千町步 取御油一百一萬斤 三備地方二千町步 二十五萬斤 朝鮮地方六百町步 四萬斤이다 北海道産은 近日에와서 品種을 改善하엿스나 氣候가 寒冷하야 年一回刈取하는바 家畜飼料로 栽培하고 三備地方은 氣候好適으로 年三回刈取하고 優良品을 産出하며 朝鮮의 主要産地全南은 氣候風土가 適合하여 年三回刈取하고 優良品을 産出하는데 朝鮮에는 大正七年 岡山縣으로부터 種根을移入하여 처음 松汀里 南平 綾州地方을 中心으로 栽培獎勵하엿고 今番全南道는 昭和十年六月一日附道令으로 薄荷取卸油檢査規則이 發布되엇다

二、栽培

▲가、氣候

薄荷는 溫帶地方 特히 取卸油生産을 目的으로하는 栽培는 一般으로 降雨가 적고 高溫한 地方이 最適하다 그리고 收穫期는 雨量이 적은것이조흐며 降雨가만허서 多濕한때에는 病虫이 만히 發生한다

▲나、土質

薄荷栽培에 適當한 土質은 冲積層의 砂質壤土 並 粘質壤土 또는 排水가良好하고 有機質이 만흐며 表土가 기픈것이 最適하나 過度한 乾燥地 또는 濕氣가 만흔 重粘地는 栽培上 不利하다

▲다、品種

薄荷는 多年性植物로 日本種 西洋種、野生種、三種으로 나눌수잇다

【一】赤丸種=莖 紫色 白色毛茸가密生 葉 短楕圓形 花 淡紫色 性質은弱하고 油量이만타

【二】靑丸種=莖 綠色 葉 丸、花紫色 性質은强健하고 收量은만흐나 油量이 赤丸種에 比하면 적다 種類는만흐나 朝鮮에잇서서 以上의 種類가 第一 適當한 品種이라고한다

【三】北見赤丸種=在來種인데莖紫色 葉 中形의立葉銹病에 퍽강하고 油量이만흐나 腦分이적은 缺點이잇고 八九月頃에開花한다

【四】白毛種=莖 紫色 葉 長形 銹病에對하야抵抗力은 中位나되고 生産力은 前種과 略同하다 다음은略한다

○犬(개)薄荷라는 不良種이 잇스니 混入치안토록 栽培期에 選種함이 必要하다

三、繁殖

薄荷의繁殖에는 株分과 根分의二種이잇다

▲가、株分=春植의方法인데 五六月新芽가 三四寸쯤 伸長할때에 株를 掘出하여株分한다 普通一段步에서七〇ー一二〇貫의種根을 得하나 株分은 一段步에對하여 二〇ー三〇貫을 植付한다 春植은 寒地에 適當한 方法이고 普通經作은 麥作期에 栽培한다

▲나、根分=秋植의方法인데 十一月頃 地下莖을 掘出하여이것을 그대로 또는 種莖不足時에는 白色의 莖을二三寸쯤으로 끈허서 植付한다 此方法은 暖地에서 行하는바 普通段步에서 一〇〇ー一二〇貫의 種根을 得하고 一段步에對하여 三〇ー五〇貫을 植付한다 根分法은 收量이만코 普通行하는方法이다

四、植付

植付田에 肥料를 撒布하고 四五寸으로 深耕한後 數回 犁耕를하여 土塊가 업시 細密하고 普通一尺五寸畦를 만들고 株間五寸距離에 大株二本 小株三四株를 植付한다 種根은 바람 또는 日光에 쪼이면 黑變腐敗의 念慮가잇스니 될수잇스면 覆土를 迅速히함이 必要하다 日氣는 曇天無風의 날을 가려서 行함이 可하다 春植은 五月上旬 六月上旬 秋植은 十月下旬 十一月下旬까지 全南은 秋植十一月中下旬이 最適期라하며 十月中旬부터十二月上旬까지植付한다

五、施肥

地味土質에 따라서 每年 連作地는 地力이 漸次 減少하니 每年 多量의 肥料를할지나 春季 刈取後 速效性의 肥料를 主肥로 하고 生育에 따라서 速効質肥料를 液肥로 加用하는것이조타

◇綾州地方의標準施肥例

【例一】粘土又는 粘質壤土田地의境遇

肥料名	總量	三月下旬	四月下旬	一番刈後	二番刈後
堆肥	二〇〇貫	—貫	二〇〇貫	—貫	—貫
人糞尿	五〇	一五	一五	一〇	一〇
棉實粕	三六	一五、五	—	一〇	一〇、五
睞粕	一五	—	—	五	一〇
草木灰	二〇	五	—	六	九

【例二】砂質壤土의境遇

肥料名	總量	三月下旬	四月中旬	一番刈後	七月中旬	二番刈後
堆肥	二〇〇	—	二〇〇	—	—	貫
人糞尿	五〇	一五	—	一五	一〇	一〇
棉實粕	四〇	一七、五	—	一〇	二、五	一〇
睞粕	一五	—	—	一五	—	—
草木灰	二〇	五	—	一〇	—	五

右例三成分은左와如함(單位貫)

	窒素	燐酸	加里
例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例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地下莖이 蔓延 또는 生育함에 따라서 施肥를 漸次 增加함이 必要하다

琺瑯鐵器를◇◇◇로指定
重要物産으로
輸出에組合檢査必要

朝鮮의 新産業으로 勃興하고잇는 琺瑯鐵器는 日本內地側同業을 壓迫하리만큼 如한 趨勢를 示하고잇슴으로 總督府에서는 今二日附官報로 琺瑯鐵器를 重要物産으로 認定하는 旨 告示하고 今後 同物産의輸出에 當하야서는 電球同樣 組合檢査를要하게되엇다

日本마네工場完成

日本마네사이트 城津工場은 十一月末까지거의 建設工事로마치고 十二月中旬에 機械据付를하야 十二月二十日前後 各重役立會下에 火入式을 하게되엇다는데 本格的操業은 一月初旬이될 모양이며 初年度生産은 크린카 十八萬噸輸出은歐洲方面이라한다

鴨江木材産組에서 積極的活動을開始

【新義州】平北金融組合聯合會支部로부터 三十萬圓을 限度로 資金融資를바더 今年부터 積極的活動을 始作한 鴨綠江木材産業組合에서는 二十萬圓의 貸出을 하엿는바 組合員으로부터 回收되여 聯合會支部로서는 回收가 넘려되엿스니만콤 前記와가튼 結果는 將來에 적지안흔 期待를 갖게하는바 同組合은 來年度의 資金申込受理를 머지안어 開始하려고 準備를 進行中인데 먼저 自己資金을 融通할 方針이라 한다。

全南道의油桐은 中國보다도有望
將來를囑望·增産計畫

全南에自生木을 發見하고 有望視되고잇는 油桐增産에 關해서는 全羅南道로부터 拓殖技師가 中國四川省에 出張하야 詳細調査한 結果 如左히 栽培上有利한 條件이確認되게되어朝鮮內栽培獎勵의 今後는 크게 期待된다 卽

世界의 主産地인 中國四川省의 氣候土質은 全南濟州島와 類似하고 特히 土質條件에잇서서는 朝鮮內가 優秀할뿐만아니라 中國의 四川省은 交通、搬出、條件이 자못不便하야 運賃과 如함도 上海에出荷되기까지에 諸雜費를 要함에 比較하야 朝鮮의 全南地帶는 이에잇서서도 훨신 利便이만타 油桐은 重要한 塗料原料로 中國의 輸出額은年額一億二千萬圓에 達하고 日本도 年額二百萬圓의 桐油輸入(飛行機塗料其他)同加工品(米國으로부터와니스其他)가輸入되는 狀況으로이 生産의前途는 크게期待되는 全南에서는 總督府와 提携하야 大大的으로 增産計劃을進行할豫定이다

撫順오일셀에서 千三百萬屯增産

【撫順】撫順오일셀工業은 二千萬圓增産과 擴張事業費 二千萬圓을 十一年度豫算에 提出하엿든바 滿鐵重役會議의結果 原案을 修正케되엿는데 工費 一千三百萬圓의 三個年繼續事業으로 特別事業費中에서 計算承認케되엿는데 修正된 增産計劃은 百五十萬屯 頁[illegible]六十基를 新設하고 粗油 十八萬屯과 重油 精油等을 産出하리라는데 石炭液化學工業은 國策과 重要關聯이잇는이만큼 水谷滿鐵顧問等을 通하야 海軍省과 協議決定케되리라고한다

京畿道特産栗 海外輸出을企圖
道山林課서米國에見本荷送
年生産高二萬餘石

京畿道內 楊州 加平 水原 始興 抱川 漣川各郡으로부터 年額二萬餘石의 優秀한栗의 生産되는데 일즉이 楊州 水原兩郡에서는 栗出荷組合을 組織하야 內外各地에 販路를 開拓하고잇스며 其他郡은 道農會에서 斡旋을하고잇든바 이번山林課에서는 道內産地에잇서 栗의長期貯藏을 奬勵하는一方 멀리 北海道 米國方面의 販路의 開拓을 企圖하야 벌서 見本으로 米國에 二石四十封度(特五四十八斗)北海道에 約二十石을 荷送하엿다하며 其外 京城府內 各官公署에도 販賣로 斡旋하는中이라는데 그數量은 一千三百俵 即 五千二百石에 達한다고한다

滿鐵撫順製油所서 新製油機械試運轉

【撫順】滿鐵撫順製油所에선目下 크랑킹 製油機의 機械試運轉中인바 느저도 明年三、四月頃에는 製品을 事實總督에納入하며 市場에 賣出하리라는데 滿鐵商事部에서 獨占販賣케되지나안흘까하고 一般이注目하고잇는바 形式上事實上의 元賣捌[illegible]

[illegible] 公司의 管下에서 新京、奉天、撫順、開原、鐵山、四平街、遼陽、營口、安東、錦州等地에 販賣部를두고 [illegible] 分配케되[illegible]은 [illegible]가잇지만 今後製品을 [illegible] 法을달리하여 優良品이라는 [illegible] 般에게 認識시키리라는바 滿鐵商事部의 獨占販賣說은 解決되엇스므로 業者들도 어느程度까지安心하고잇다고한다

件 그金額二億八千百八十一萬千餘圓에 達하는데 그內容을보면 다음과갓다 (以下金額單位圓)

用途別	件數	金額
金組聯合貸付	[illegible]	[illegible]
行政	[illegible]	[illegible]
敎化	[illegible]	[illegible]
衛生	[illegible]	[illegible]
交通運輸	[illegible]	[illegible]
水利事業	[illegible]	[illegible]
土地改良	[illegible]	[illegible]
農業	[illegible]	[illegible]
林業	[illegible]	[illegible]
鑛業	[illegible]	[illegible]
畜産	[illegible]	[illegible]
工業	[illegible]	[illegible]
水産	[illegible]	[illegible]
電氣瓦斯	[illegible]	[illegible]
釀造	[illegible]	[illegible]
土木	[illegible]	[illegible]
鑛業	三	[illegible]
商業	[illegible]	[illegible]
土地家屋	[illegible]	[illegible]
負債整理	[illegible]	[illegible]
其他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備考十月末殘高	[illegible]	[illegible]

滿鐵消組賣上高 一億百萬餘圓
中小商人大打擊

【撫順】滿鐵消費組合 十月末賣上高는 全滿消組를通하여 一億百二萬八千九百五十一圓에 達하는데 其中撫順消組에서만 賣上高가 百七萬三千三百三十三圓인바 前年同期에比하면 二割一分五厘의 增加를보이게되여 滿鐵社員들은 大槪가 消組를 利用하는이만큼 中小商人들은 큰打擊을밧고잇다고한다

麻生鑛利原에賣却

利原鑛山에서 買收한 元麻生의 所有인 利原鑛山二鑛區은 麻生氏가 鑛區稅滯納으로 鑛業權을 失權 東拓이 抵當權을 喪失하야 同時에 石津某氏가 新規로 出願 鑛業權을 新設 今回 約八萬五千圓으로 利原에 賣却하엿다한다

滿洲國幣統一 年內解決
松原朝銀副總裁談

滿洲國內 國幣統一에關한 朝銀과 滿洲中央銀行의 交涉은東京에서 隨時開催되는터인데 그經過에對하야 松原朝銀 副總裁는 如左히말하얏다

雙方의 立場이相異하고 主張도 不一致함으로 交涉이 잘進行되지안코 滿洲中央銀行의 代表는 交涉項目에 對하야 一一이 新京本店에 請訓함으로 時日이걸린다 그러나 政府는 旣定方針임으로 萬難을 排除하고 統一實行에 進할것이니年內에는 何等의 解決이되리라고思한다 渡東中의 橫瀨理事는 이重要問題만맛나면 歸任할터이오 交涉內容은 말할수 업스나 萬若協定이되지안흘때 特히 國幣圓의파ー가 今後繼續되지안흘때等은 考慮치안코잇다云云

朝鮮産洋灰의 移出이顯著
比前年三十割激增

洋灰의 日本內地積出은 日本內地와 朝鮮세멘트 抗爭以來 激增의 一途를 것고잇는바 十月까지의 그移出數量金額은 모다 前年比三十割의 激增을 示하고잇다 即

	今年十月	前年同期	比增
數量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金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價格二百萬圓의 激增으로 이는 小野田이 폴 파워ー運轉으로果敢히 日本內地 進出을 行한實績으로 보인다

殖銀公共貸付

十月中 殖産銀行에서 共公産業에 貸出한것은 三萬六千五百餘圓이라 한다。

京畿道漁組聯合會 第一回協議會開催

二日午前十時 京畿道漁業組合聯合會第一會議室에는 京畿道漁業組合聯合會設立 第一回 協議會가 開催되엇는데 參加한 漁組는 富川江華郡下에 잇는 五組合으로서 聯合會의 事業目的은 水産物販賣統制、漁業金融及 漁業組合指導等이라한다

鑛業權設定·移動

◇鑛業權移轉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二二六七	平南中和郡東頭面 大同郡栗里面	十一月五日	奉天千代田通代表者 今里信多一 同 [illegible] 同 [illegible]入郎
一〇七七〇	咸南[illegible]原郡水洞面 [illegible]內里	同	永興郡洪仁面代表者 [illegible] 同 仁興面 [illegible] 同 民仁面 [illegible] 同 洪仁面 [illegible] 同 仁興面 [illegible]
一一七六一	同定平郡文山面	同	咸興府中央町 秦良英
八九二九	全北長水郡蟠岩面	同 六日	井邑郡井州邑 朴明奎
四八一二	慶南陜川郡大幷面陽山里	同	京城府南山町 戶津學
一〇九〇一	江原橫城郡井谷面	同	同崇三洞代表者朴[illegible] 同 水標町 崔[illegible]
一〇七三七	忠北丹陽郡丹陽面	十一月八日	京城府三坂通代表者 米村[illegible]平 同 原義光
一一五九三	全北完州郡雲洲面	同	大邱府龍岡町 松本[illegible] 咸興府新興町 代表金基坤 同 本町 金相鳩 同 住吉町 朴華燮 平原郡朝雲面 鄭昌元
三三八九	平北江界郡從南面	同	江界郡江界邑 朴[illegible]
八八九五	平南成川郡巢泉面	十一月九日	平壤府上需里代表者 車淳文 成川郡巢泉面 朴大熙 開城府西本町 朴明心
八八四	忠北沃川郡靑城面	同十一日	大田府春日町 末吉豊實
一二一二〇	同忠州郡山尺面	同	京城府黃金町 朴春琴
一〇二六九	忠南禮山郡新陽面大述面	同	禮山郡禮山面 成元慶
一二一三七	平南平原郡東岩面	同	平原郡順安面 順安砂金株式會社
一二二六二	同公德面	同	同
三一〇〇	同東岩面順安面	同	同
一二〇二五	同東岩面兩花面順安面	同	同
九八〇三	江原寧越郡兩邊面	同	京城府竹添町 小平亮二 寧越郡寧越面 崔承喜
一一七七五	咸南長津郡西閑面	同	長津郡新南面代表者 盧英元 京城府太平通 久保角次郎
九〇八八	黃海海州郡東雲面 平山郡麟山面載寧郡上署面	同十二日	同鹽松洞代表者 卞東均 載寧郡上署面 中村好太郎
一二三二九	平南安州郡大尼面	同	共同鑛業權者小川馨房의持分을江東郡晩達面雲鶴里金晶鎭에게移轉함
九八〇三	江原寧越郡南邊面	同	京城府本町 本庄曹子

◇共同鑛業權者脫退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一〇七八四	黃海甕津郡東南面	十一月七日	金陽圭任意脫退함
一〇九八四	江原平康郡木田面	同 九日	全完基任意脫退함
同	同	同	全東燮任意脫退함
同	同	同	安尙祐任意脫退함
一〇三七九	咸南新興郡下元川面	同	金昌煥任意脫退함
一二三五一	江原原州郡貴來面 忠北堤川郡白雲面	十一月九日	尹秉鉉任意脫退함
八七〇三	黃海松禾郡蓬萊面 桃源面	同十一日	堀鑛業株式會社任意脫退함

◇鑛業代理人屆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鑛業權者	事項
一一八四七	江原通川郡欽谷面	崔汝均	元山府銘石洞九四番地申順用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年十一月八日屆出
六六一三	忠南天安郡笠場面 稷山面成歡面	合井金山株式會社	天安郡笠場面黑岩里笠貞雄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年十一月十日屆出
一〇四一七	咸南安邊郡安道面	崔完基	京城府齋洞元達鎬를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年十一月十二日屆出
一〇八七九	忠北忠州郡老隱面 周德面	白崎忠	忠州郡忠州邑大手町平澤熊太郎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年十一月十三日屆出
一二〇六四 一二〇六五 一二〇六六 一二〇六七 一二〇六八 一二〇六九 一二〇七〇	江原平昌郡美灘面 寧越郡北面 同寧越郡北面 同寧越面北面	朝鮮電力株式會社	江原寧越郡寧越面永興里宗田惣一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年十一月十五日屆出
一〇八一八	忠南公州郡木洞面 灘川面	李啓哲	公州郡木洞面木洞里李壽範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年十一月十五日屆出
一二三八一	平北宣川郡東面	三成鑛業株式會社	龜城郡舘西面道臣洞興津時馬를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年十一月十五日屆出
九二五三	慶南固城郡三山面 上里面	石原産業海運株式會社	固城郡三山面長峙里郡義勝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年十一月十八日屆出
九二五四	同	同	鑛業代理人田中惜擧解任하고固城郡三山面長峙里郡義勝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年十一月十八日屆出
五七九一 五七九二 五七九五 五七九六	咸北明川郡阿間面	英瀧鑛業株式會社	明川郡阿間面龍岩洞久越茂七郞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年十一月十九日屆出
七九一九	咸南安邊郡瑞谷面	李達銘	鑛業代理人柳鍋變의住所를安邊郡瑞谷面鶴[illegible]里로變更한旨昭和十年十一月十二日屆出

林巨正 火賊 (228)
洪碧初 作
安碩柱 畵

청석골 六의七

여러두령이 사랑마당에 들어올때 꺽정이가 방안에서 내다보고 불르지안흔사람들은 가라고 소리질러서 여러두령이 모다 무춤하고 발을 멈주어섯는데 서림이가 툇우에 올라가서서 이야기하는동안에도 당흔사람들 마당에 선채로 서잇섯다 꺽정이가 황천왕동이에게 분부하는말이 끗나자마자 여러사람틈에 끼어섯든 배돌석이가 아프로 나서서

『잘못하기루말하면 나나 천왕동이나 똑가티 잘못햇스니까 천왕동이만 잘못한걸루 치실일두 아니구 그러구 천왕동이하구 나하구 서루 용서하기루 발서 말까지 다 햇는데 김억석이를 차저와야 용서한다는건 공연한 충절 입니다 어듸가 파무처잇는지 소식두 몰으는 사람을 건궁 대매루 나가서 엇더케 찻습니까 억석이를 차지실생각이 잇스면 두구서차차 수소문해서 찻두록하시지요』

하고 배돌석이로는 한껏 구변을 다하얏다

『너는 용서는 헷거나말거나 억석이를 못차저오면 내가 용서를 안할테란말이다』

『엇재서 하필 억석이를 차저와야 용서를 하신답니까』

『억석이차질이애기루 천왕동이가 네게 발칙스럽게 굴엇다니까 그벌루 차저오란말이지』

『그럼 나두 천왕동이하구가치 차지러가겟습니다』

『너는 못간다』

『왜 못갑니까』

『내가 너는 안보내겟다』

리봉학이가 배돌석이여프로나서며

『말다룸한벌루 김억석이를 차지러보내실라면 둘을 가치보내는게 올치안습니까』

하고 말하는것을 꺽정이가 중뿔나게 나서지말라고 닐르고

『천왕동이는 오늘해안으루 떠나가거라』

분부한뒤 곳 열어노코 안젓든 압영창을 탁 다치엇다 여러두령들이 한동안 서로들아보다가 박그로 몰려나오면서

『대장 처사가 공평치못하시군』

『화가 잔뜩 나섯다기에 나는 또 죄기롤하느니 군법을 쓰느니할까봐 속으루 넘너롤햇서지』

『군법두 쓸떼가잇지 말다룸좀 햇다구 무슨군법이요』

『군법에 비처서 처단할라면 할수잇다뿐이야』

『말다룸하는것두 죽일죄란말이요』

『죽이는것만 군법으로 아는두나』

『요전에 황두령이 대장하구 말다툼하다가 군법을 당할뻔하지안핫서』

『그때는 대장명령 거역한다구 엿지 언제 말다룸한다햇든가베』

『우리가 그때처럼 뭉치솔 노으면 군법을 쓸라니 쓸수잇소』

『뭉치솔 노을까봐서 우리를내쪼치려구하섯는지 몰으지』

『내쫏는다ㅜ 우리 몰으게될수가잇슴세말이지요』

여럿이 밧고채기로 짓거리는중에 황천왕동이는 고개를 숙이고 말업시 걸어나왓다 배돌석이가 황천왕동이 여페 와서

『어더케할테냐』

하고 물으니 황천왕동이는 흥심업시

『어더케 하다니 오늘 떠나지 별수잇소』

하고 대답하얏다

『그럼 나두 가치갈테다』

『고만두우 겹엽이 재지못해서 동행하기두 갑갑하구 또 가지말라는걸 가면 뒤에 말성스럽소』

『길넝식지구갈 아이하나는 데리구가겟지 그리자면 자연접응을 말대루 못졀을꺼아니냐』

『홀가분하게 괴나리보짐이나하나 해지구 혼자 떠나갈라오』

『사람두 하나 안데리구 갈까닭이 무어냐』

『사람 안데리구 혼자다니는건 외려 섬가시지안쿠 조치만 괴한두 업구 정처두 업시 떠돌아다닐 생각을하니 긔가막히우』

황천왕동이 말끄테 늘근오가가

『이사람아 억석이를 보고 생각차지면 생전 떠돌아다닐려가 그저 한 열흘동안 유산나선 셈잡구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들어오게그려』

하고 말하얏다

『바게나와서 무슨공논들하우』

곽오주가 마진편에서 오며 소리를 질럿다 곽오주는 동뎐어집에 넘어가잇다가 배두령과 황두령이 쌍올하고 대장대에 잡혀갓단소리를 듯고 쪼차오는길이엇다 곽오주가 와서 방갓복이의 이야기로 전후사단을 다 들은뒤에、황천왕동이더러

『김억석이란놈은 보내사람이 차저놔야할텐데 공연이 횡액에 걸렷구려 지금 그눔을 찻자소임 도두령노릇을해야겟소』

하고 말하야 여러두령들은 그것이 무슨소린가하고 곽오주의 얼굴을 바라보앗다